

보육활동의 길잡이

우리네 아이들

95.10



저/역/사/외/탁/아/소/연/합/회

1995년 10월호 첫발행 92.5.25. 통권 34호 발행인 최현숙

보육활동의 길잡이

우리네 아이들

95.10



<특이사항>

본월 3월 10일
본월 10월 10일
본월 10월 10일
본월 10월 10일
본월 10월 10일
본월 10월 10일
본월 10월 10일
본월 10월 10일

저/역/사/외/탁/아/소/언/압/외

1995년 10월호 첫발행 92.5.25. 통권 34호 발행인 최현숙

짜 · 임 · 새

일하며 생각하며 / 3

한번 지탁연은 영원한 지탁연이다

최현숙

새날을 여는 사람들 / 5

땅을 딛고 선 공동체, 둥근나라

주혜민

긴급난단 / 8

만 5세아 조기입학, 어떻게 할 것인가

편집부 엮음

지상강연 / 16

아이들을 살려야 한다

이오덕

특집 / 19

독일탐방기(1)

박주현

좋은 그림책 소개 / 22

연장연고 / 25

믹 잉크펜의 『재롱이의 생일날』을 아이들과 함께 읽고 나서

이현경

작은 기획 / 27

쉽게 배우는 사진, 비디오 교실(2)

김태일



<표지 사진>

아이들이 넓은 공간에서 맘껏 뛰어놀기에 좋은 계절이 왔다.

서늘한 가을의 하늘과 햇살이, 지금이라도 답답한 공간을 벗어나고픈 욕망을 느끼게 한다.

우리네 아이들

95.10월호

<통권 34호>

지상강연 / 30

“여성의 눈으로 세계를 보자”

시사말뚫이 / 34

출산, 생리....여성만의 책임인가?

연장소식 / 35

덩다다 쿵따쿵~

건강하게 삽시다 / 37

감기와 감기의 합병증(2)

글마당 / 39

탁아소별곡

향기 있는 자리 / 41

어린 왕자

소식과 소식 / 46

보육계풍향 / 49

벽록시장 / 54

편집부에서 / 55

김명륜

편집부

서은희

이흥진

[작작폭폭 놀이방]편

원작 생뱀쥐베리

일하며 생각하며

한번 지탁연은 영원한 지탁연이다

최선희 / 본 회 재정국장

요샌 크게 신명나는 일이 없다. 다만, 가을 낙엽과 찬 바람이 있을 뿐.

늘 분주한 어린이집의 하루는 자잘한 웃음거리 속에 지나가고, 내가 일하는 방앗간의 하루는 기계소음, 아주머니들의 수다, 흥정 속에서 지나간다.

살아가노라면 많은 사람들의 타락과 이기에 입맛 떨어지다가도 우리 연합회 사람들과 만나 이런 일 저런 일을 의논하다보면 그래도 이렇게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기에 세상은 올바르게 가리라는 믿음이 생긴다.

나 개인적으로 참 많은 삶의 의미를 이곳에서 배웠다.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

인간이 모여 힘을 합하면 늘 창조적인 힘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뛰어난 여성 노동자들의 능력과 지혜를 알 수 있었고 배울 수 있었던 곳. 서른살이 넘어서도 계속 활동을 할 수 있었던 곳. 그래서 일하는 여성의 아름다움을 진하게 느낄 수 있었던 곳.

그렇기에 난 행복한 사람이다.

조직의 규모가 작으면 작았던 대로 소임을 다 하고 작은 만큼 정겹고 소박했던 초창기 시절, 지금보다 훨씬 더 어렵고 힘들었던, '탁아소'란 말을 입에 담기도 어색했던 소위 운동의 대열에서도 언제나 아웃사이더였던 시절이 우리에게 있었다.

지금보다 훨씬 더 어렵고 힘들었던,
'탁아소'란 말을 입에 담기도 어색했던 그 시절의
그 외침과 절규와 피와 땀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의 보육현실이 있는 것이다.

가장 낮게 머리 숙여 온몸 바쳐 일했던 우리였기에 아무리 변했다지만 아무리 공허하다지만 우리 그다지 허허롭지 않다.

탁아소가 필요할 땐 탁아소를, 운동론이 필요할 땐 운동론을, 정부의 탁아정책이 무능할 땐 신랄하게, 대안을 제시할 땐 신중하게, 법이 필요할 땐 법 제정에 앞장 섰던 그 시절의 그 외침과 절규와 피와 땀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의 보육현실이 있는 것이다.

미완의 현실 앞에 우리의 할 일 많은 미래를 위해 다시 한번 어깨동무 하면서 지탁연을 만들고 가꾸고 보살펴온 모든 이들이 모여 10주년을 기념한다는데 우리 이 가을 더욱 더 풍성한 10년 건이가 되도록 기꺼이 참여하고 싶다.

보육사업의 선두주자로서 힘껏 달려온 그리고 힘차게 달려나갈 지탁연 사람으로서 모두가 주인되는 잔치를 만들어 가야 하리라.

만나서 기쁘고 축하해서 기쁜 10주년 잔치에 우리 지난 날을 마음껏 음미해보자.

이젠 이 가을이 신명날 것 같다.

지탁연을 거쳐간 모든 이들에게, 한번 지탁연은 영원한 지탁연이다.

편집부에서 : 본글에서 '탁아소'는 '보육시설' 또는 '어린이집'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기 이전의 이야기를 담은 글이기에 용어를 따로 바꾸지 않습니다.

새날을 여는 사람들

땅을 딛고 선 공동체, 둥근나라

주혜민 / 편집부

가을 햇살이 따갑게 내리쬐는 9월 30일 토요일 오후.

아침부터 잡힌 회의를 마치고 장충동을 빠져 나와 찌뿌둥한 몸을 끌고 미아동으로 향했다.

둥근나라 어린이집 개원식.

사람냄새 나는 마을버스에 몸을 싣고 그런 연상을 했다 - 미아동 산동네를 힘겹게 올라 북적대는 사람들과 딱지닥지 붙은 집들 사이의 어린이집을 - 그러나 그것은 엉뚱한 생각이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수도 있었다.

.....

마을버스는 야트막한 언덕 하나 안 훑고 매끈한 도로를 따라갔다.

마중 나온 선생님을 따라 주택가를 접어들고, 골목을 들어서니 활짝 열린 2층집, 대추나무가 있는 집이었다. 예쁜 색으로 단장된 집안은 잔치준비에 다들 바빴고 그 와중에도 박금옥 선생님(35세)은 우리를 반갑게 맞아주었다.

정말 그렇게도 일을 떠나갈 수 있구나! 설마하는 생각이 반, 호기심 반이 솔직한 심정이었다. 그러나 실제로 일은 진행되어 있었고, 반은 이루어져 있었다. 그 힘은 어디에서 부터 온 것일까?

“저희 둥근나라에는 현재 6명의 운영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지만 6명의 운영위원들이 그 첫 삽을 옮겨 놓았다고 볼 수 있죠. 저희 운영위원들은 조계종 총무원에서 보육교사 양성교육



통합이전과정을 이야기해주시는 둥근나라 박금옥 선생님(35세)



개원식 준비를 하고 있는 자원활동가들

을 받은 사람들이었어요. 교육이 끝나고 나서 교사모임을 한 달에 한번씩 시작하게 되었죠. 그게 91년부터였어요. 그때 저희는 서로 다른 보육시설에서 일을 하고 있었고, 그런 현장의 경험을 서로 교류하고 교육프로그램을 하나씩 만들어와서 공유하는 모임이었죠.”

박금옥 선생님이 처음 햇님어린이집을 시작할 땐 보증금 4백만원에 월세 2십만원을 내고 아홉평의 작은 공간에서

아이들을 돌보았다. 이듬해 93년 운영위원들이 은행에 들고 있던 적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보증 1천만원에 월세 45만원의 공간으로 이전하게 된다. 그때만 해도 지탁연 소속은 아니었다.

“그렇지만 비영리를 고집했고 순수 보육을 주장했어요. 전 그랬어요. 지탁연에서 이야기하는 공동체라는 것이 싫었어요. 공동체라는 것이 여러 의미를 담고 있지만 자원활동가라든지, 후원자를 이끌어내서 재정을 마련해 운영한다는 것이 부당하다고까지 생각했지요. 그런데 조금씩 바뀌더라구요. 그렇게 지탁연 회의에도 참석하는 것을 싫어하던니 이젠 적극적으로 되었다면서 다른 교사들이 이젠 웃어요.”

공동체에 대한 사고가 변하기 시작했단다. 함께 할 때만 더 큰 의미가 있음을 알게 하는 과정이었다. 그렇게 시작된 운영위원들과 같은 지역내에서 활동하고 있던 둥근나라 어린이집(통합이전 미아1동에 있었던 본회 소속 어린이집)과 작은 교류가 시작되었고, 현재의 교육환경이 변해야 된다는 합의점에 이르게 된다.

아이들이 좀 더 안전하고 좋은 환경에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것이 특정한 아이들에게만 주어져야 되는가? 아니다. 어느 아이에게나 받을 권리가 있고 - 그러면서도 늘 소외받을 수밖에 없던 아이들을 위해 지금과 다른 공간이 필요하다는 점에 교사 개개인의 공감대가 형성되기 시작했다.

개원식에 앞서 길놀이를 하며 동네를 돌았다

“다들 저희를 간 큰 여자들이라고 해요. 그래서 아예 간을 빼놓고 산다고 하지요. 사실 저희들도 엄두를 못냈어요. 다들 황당하다고 그랬고, 그게 될 일이라며 만류하신 분들까지도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되더라구요. 그래서 지난 94년부터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보육시설에 대한 국민연금지원금(대출)을 받아내기로 했지요. 어렵게 담보문제를 해결하고 서류를 넣었는데 8,300만



원이란 돈을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햇님과 둥근나라는 본격적으로 통합문제가 4개월에 걸쳐 진행되었다. 처음에 둥근나라 햇님어린이집이라고 불려졌던 이유도 여기에 있다.

“함께 살림을 합쳐 놓고 보니까 하나도 같은게 없더라고요. 너무 신기했어요. 장난감도, 교재도 겹치지 않고 심지어 부엌살림살이도 다 다르고……. 서로 부족했던 반쪽이 하나로 완성되어가는 기분이에요. …… 모두들 신기해 했어요. 중요한 건 사람들의 마음일 것 같아요. 몇몇의 힘만으로는 절대 될 수 없어요. 모두들 너무 많이 애쓰시고 도와주었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공간을 만들어낼 수 있었다고 봐요. 지금부터는 돈을 갚아나가는 문제가 남아있지만 지금까지 함께 해온 마음들이라면 자신있어요.”

드디어 둥근나라어린이집 현판식

꼼꼼히 기록해온 통합과 이전 과정의 일지.

이전 자금에 대한 사업계획서.

아주 촌스럽게도 명언 한 구절이 떠오르는 건 왜일까.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그렇다.

따뜻한 마음을 조금씩 모아 모나지 않은 둥근나라를 만들어낼 수 있듯이 그것은 누구 개인의 것이 아니었다. 모두의 것 - 함께 책임지고 함께 운영해가는 공동체의 교육공간.

앞으로의 계획을 듣고 싶었다.

“우선 돈부터 갚아나가는 것 하구요, 좀 시간은 걸리겠지만 [아동복지회관]을 결합하는 것이 둥근나라의 궁극적인 목표예요. 경제적인 환경이 어려운 일반아동뿐 아니라 장애아, 영아, 유아 그리고 국민학교 저학년까지의 아이들이 마음놓고 이용할 수 있는 공간과 환경을 만드는 거죠.”

어린이집 안은 개원식 준비에 막판 열을 올리고 있었다.

마냥 붙들고 그들의 노하우(?)를 캐내고 싶었지만 바쁜 중에 도와주지도 못하면서 방해(?)만 하고 있을 수는 없어 뒤로 미루기로 했다.

드디어 둥근나라는 두발로 땅을 딛고 섰다.

이젠 어떻게 척박한 이 땅에 튼실한 뿌리를 내릴 수 있느냐가 모두의 관심이 될 것이다.



긴급논단

만 5세아 조기 입학, 어떻게 할 것인가

편집부 엮음

편집자주 : 교육부에서는 만 5세아 국민학교 취학을 실시하기 위하여 교육법에 대한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 이에 지난 9월 24일 서울에서 관련 6개 단체가 긴급하게 모여서 교육부의 입법예고에 대한 연대회의 차원의 의견서를 작성하기로 하여 '만 5세아 국민학교 입학 반대 및 유아교육의 공교육화 추진 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를 구성하고 9월 29일 연대회의의 이름으로 의견서를 교육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연대회의에서는 이와 함께 서명작업을 진행한 후 10월 12일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서명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본 [우리네 아이들] 편집부에서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를 앞두고 있는, 교육부에서 밝힌 국민학교 조기입학에 대한 입법예고 내용을 소개하며, 아울러 연대회의에서 제출한 의견서를 함께 싣습니다.

공고번호 : 교육부공고 제 1995-32호

행정부처 : 교육부

법령제목 : 교육법

공고분류 : 개정입법예고

입법취지 :

일제의 잔재를 청산하여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고 교육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고자 <국민학교>명칭을 <초등학교>로 변경하고 만 6세가 되지 않으면 입학할 수 없게 되어있는 초등학교에 만 5세아의 경우에도 일정 범위내 취학을 허용하여 입학연령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며, 교원의 자질향상 유도 및 교직사회의 활성화를 위하여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의 종별과 자격에 수석교사를 신설하고, 양호교사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양호교사 자격을 1, 2급으로 구분하고 자격연수를 받아 상위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공고내용 :

- 가. 일제 식민지시대부터 사용해 오던 <국민학교>명칭을 헌법 및 교육법에 규정된 <초등교육>과 부합하고 현 교육체계와 연계성을 이루면서 국제적으로도 통용될 수 있는 <초등학교>로 명칭 변경.
- 나. 만 6세가 되어야 초등학교에 입학할 수 있던 것을 만 5세아의 경우에도 학부모가 희망하고 신체적, 지적으로 학습능력을 갖춘 아동에게는 학교의 수용능력 범위내에서 취학이 가능토록 함.
- 다. 교직의 전문성 제고와 교원의 자질 향상을 유도하기 위하여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원의 종별과 자격에 수석교사를 신설함.
- 라. 수석교사는 각급학교 1급 정교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10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가진 자 중 소정의 수석교사 전형에 합격하고 수석교사 자격연수를 받은 자로 함.
- 마. 양호교사의 자격을 1, 2급으로 구분하도록 함.
- 바. 신설되는 양호교사*(1급)의 자격은 양호교사(2급)자격증 소지자로서 3년 이상의 양호교사 경력을 가지고 자격연수를 받아 취득하도록 함.

교육법 중 개정법률(안) 입법예고에 관한 의견서

대상 개정법률(안)

교육법 중 개정법률안 입법예고(교육부 공고 제1995-32호) 중 주요 골자 '나'항

“만 6세가 되어야 초등학교에 입학할 수 있던 것을 만 5세아의 경우에도 학부모가 희망하고, 신체적, 지적으로 학습능력을 갖춘 아동에게는 학교의 수용능력 범위 내에서 취학이 가능하도록 함”

의견 제안 사항

교육부에서 주최한 “국민학교 입학연령의 탄력적 운영 방안”에 관한 공청회 자료 14쪽을 보면 “5세아 조기취학으로 인하여 현재도 열악한 국민학교와 유아교육기관의 교육환경이 더욱 악화되지 않아야 하며, 거주지역에 따라 아동들의 교육기회가 불평등해져서는 안되며, 기왕에 입학된 아동들은 가능한 부적응 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최대한의 교육적 조치를 실행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다른 나라의 예에서처럼 만 5세아의 국민학교 조기입학 허용은 “1%보다 매우 적은 수의 아동”을 대상으로 하여야 하며, 지적 특성 뿐 아니라 비지적 특성을 고려하고, 공식적인 관찰과 비공식적 관찰 및 면접단계를 거치면서 다양한 특성과 재능을 검사하고 확인하여야 하는 조기입학제도가 마치 만 5세아는 누구나 국민학교에 입학할 수 있고, 입학하여야 하는 것과 같은 분위기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 폐해로 만 4세 아동들이 학원으로 몰려가서 특별과외를 받는다는 것이 언론을 통해서 보도되고 있고, 국민학교 2부제 수업을 하는 지역의 학부모들은 다른 지역으로 위장전입이라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하면서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바야흐로 만 5세아 국민학교 입학을 위한 입시경쟁이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 5세아 국민학교 조기입학의 부작용은 교육의 뿌리를 흔들 것임은 자명한 일입니다. 이에 제안서에 서명한 각 단체의 대표들은 교육법 중 개정법률(안) 입법예고(교육부 공고 제1995-32호 중 주요 골자 '나'항) 법안의 폐기, 유치원의 기간 학제화, 유아교육의 무상공교육화 및 국민학교 교육 환경의 개선을 건의합니다.

의견 제안의 배경

1. 선발의 전문성과 신뢰성의 문제

한국교육개발원의 공청회 자료에 나와 있듯이 대상아동의 선발은 장기간에 걸쳐서 전문가의 관찰과 검사가 선행되어야 하며, 단순한 지적 능력뿐 아니라 비지적 특성도 고려하여 조기입학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제시하고 있는 방법은 학교 수준의 입학허가운영위원회에서 1회의 면접을 통해서 선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선 학교수준의 입학허가운영위원회는 그 구성에 있어서 전문성을 결여하고 있을 뿐 아니라 면접의 방법 또한 1회 면접으로 국한하고 있어, 사실상 '똑똑해 보이는 아동'을 선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입학허가위원회에는 국민학교 교장과 교사, 학부모 등이 참석하고, 관내의 어린이집 교사나 유치원교사가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현실에 비추어 유아교육 부분에 전문적 지식이 없는 다수의 위원들이 과연 엄밀한 검사가 가능한지 의문입니다. 또 단 1회의 면접으로는 '특수 재능아'인지의 여부를 가릴 수 없어 국민학교 입학후 부적응아를 만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처럼 선발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결여한 학생선발은 매우 위험합니다.

2. 선발제도로 인한 유아교육의 파행화

교육개혁위원회에서 "수학능력을 갖춘 아동을 선발"하겠다는 발표가 있는 직후부터 각 유치원에서 상당수 만 4세 아동들이 "수학능력을 배양"한다는 이유로 사설 학원으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유아들 상대로 한 사설학원은 국민학교 조기입학을 대비하는 만 4세 아동으로 성황을 이루고 있다고 합니다. 또 일부 학부모들은 유치원의 만 4세반을 국민학교 입학대비반으로 만들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처럼 유아교육이 공교육화 되어있지 아니한 상황에서 성급하게 국민학교 5세아 조기입학을 시행하는

것은 유아교육 자체를 파행으로 이끌어 갈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좋은 뜻으로 정책을 입안하였다고 하더라도 교육에 있어서의 한국적 상황이라는 특수성을 무시한 정책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학입학시험제도가 정부 수립 이후 10년이 넘게 바뀐 것은 한국의 특수한 교육현실을 말해 주는 것입니다. 아무리 비지적 특성까지 고려하여 선발한다고 하지만 선발에 대비한 준비가 만 4세아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면서 그렇지 않아도 흔들리고 있는 유아교육의 토대는 완전히 허물어질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특히 선발에 있어서 예상되는 경쟁률을 보면 더욱 심각합니다. "1%보다 매우 적은 수"의 '특수재능아'를 엄격하게 선발하여야 하는데, 지난 6월 서울시 교육청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는 22%의 학부모가 조기입학을 희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만 5세아 국민학교 조기입학 선발과정에서 최소한 30~40 : 1의 경쟁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며, 한국 교육의 특수성에 비추어 조기 입학 희망자가 급증하면서 경쟁률은 더욱 치열해질 것입니다.

아울러 대다수의 선발되지 못한 많은 아이들이 생애의 첫 실패를 맛보면서 받는 정신적 타격을 어떻게 치유할 것인가의 문제도 있습니다. 또한 선발되지 못한 5세아의 학부모들이 받게 될 좌절감과 실망감으로 인한 폐해도 엄청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입학비율을 늘린다면 본래의 목적인 '특수재능아'를 조기입학시킨다는 근본취지에 벗어나는 것이며, 부적응아의 양산을 초래하는 난점이 있습니다.

3. 생년월일로 선발하는 문제

"학습능력을 갖춘 아동을 선발"하는 방법으로 "생년월일 순"으로 뽑을 경우에는 본 조기입학제도의 목적인 "특수재능아의 조기교육"이라는 본래의 취지에서 벗어나는 것으로서 재론할 이유가 없으며, 오히려 유아교육의 위축과 초등교육의 혼란만을 초래하게 됩니다.

4. 지역간의 "학교의 수용능력" 차이에서 나타나는 문제

국민학교의 수용능력이 거의 없는 대도시의 학교와 수용능력이 충분한 농어촌과 도시 변두리지역의 학교간의 차이는 만 5세아 국민학교 조기입학이 지역적으로 차등을 두고 실시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는 한국교육개발원의 발표에서도 "지역 단위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되어있는 것을 보더라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사정으로 농어촌과 도시 변두리지역에서는 "학습능력"이 부족하더라도 국민학교에 입학하게 되며, 도시지역에서는 "학습능력"이 충분하더라도 국민학교에 입학할 수 없

게 됩니다.

더구나 농어촌과 도시 변두리지역의 경우에는 교육비 부담이 큰 유아교육보다는 의무교육인 초등교육을 선호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교육적 이유보다는 경제적 이유로 인해서 국민학교 조기입학을 선호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후에 농어촌과 도시 변두리지역을 중심으로 학력 부진이나 부적응아를 양산할 우려를 낳게 합니다.

이러한 지역적 불균등의 해소를 목적으로 학교지원지역에 융통성을 두었을 경우에는 만 5세 아동이 조기입학을 위해서 “수용능력”이 있는 국민학교로 장거리 통학을 하는 사태를 빚을 수도 있습니다.

5. 농어촌지역의 병설유치원 운영난과 도시 변두리지역의 중소 사립유치원과 보육시설의 운영난

농어촌지역의 병설유치원은 대부분 20인 이하의 소규모 학급입니다. 이 소규모 학급에서 만 5세아가 국민학교에 입학할 경우에는 농어촌지역의 병설유치원 원아모집에 문제가 발생하여 결국 읍면단위 이하 지역의 병설유치원은 운영할 수 없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농어촌지역의 유일한 유아교육기관인 병설유치원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농어촌지역에는 유아교육의 혜택이 줄어들게 됩니다.

아울러 만 5세아를 국민학교에, 만 4세아를 사설학원으로 보낸 도시 변두리지역의 소규모 유치원과 보육시설은 앞으로 운영난으로 인해 문을 닫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병설유치원도 없는 이들 도시 변두리지역에서 유아들이 갈 곳을 잃어버리는 상황에 놓여집니다. 이로 인해 취원율의 급격한 감소는 물론 현재 정부의 주요 정책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보육시설의 확충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도 있습니다.

6. 현재의 국민학교 교육환경 속에서의 조기입학 만 5세아의 문제

적령기를 앞당겨 입학한 만 5세아는 초기에 상당한 관심으로 보살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의 과밀학급 상태에 있는 국민학교의 교육여건상 특별한 지도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특수재능아’로서의 성장을 할 수 있을 지 의문입니다. 즉, 현재와 같은 초등교육의 상황에서는 아무리 조기입학한 특수재능아라 하더라도 조기입학한 만큼의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아직 우리나라의 국민학교 교육방식은 선생님이 칠판에 판서를 하거나 지도를 하는 대로 아동들이 따라서 하는 교사중심의 주입식 수업방식이 주된 수업방법입니다. 이러한 수업은 만 5세 아동이 정서적으로 견디내기 힘든 환경입니다.

7. 부적응아에 대한 대응의 문제

만일 조기입학한 만 5세가 적응하지 못하고 부적응아가 되었을 때, 이에 대한 구체적인 현실적인 대처방안이 없습니다. 한국교육개발원에서는 교사의 개별지도를 통해서 적응하도록 유도한다고 하나, 한국의 초등교육현실에서 만 5세아를 개별지도할 여건이 갖추어져 있지 않습니다. 국민학교 교사가 만 6세아의 지도와 만 6세 부진아의 지도, 아울러 만 5세아에 대한 관심과 만 5세 부적응아에 대한 개별지도를 하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또 부적응아로서 탈락한 이후에 해당 아동과 부모가 받게 될 회복할 수 없는 열등감과 좌절에 대한 적절한 대책도 갖추어져 있지 않습니다.

8. 초등교사들의 근무부담 문제

초등교사가 한 학급에서 맡고 있는 아동의 수는 50명에 가깝습니다. 만 5세 아동까지 학급에 포함되었을 경우 초등교사의 근무부담은 증대되기 마련입니다. 만 6세아 중에서 학습 부진아를 추가로 지도해야 하는 초등교사가 만 5세아에 대한 개별지도와 특별한 관심을 요구받았을 경우에는 근무부담이 엄청나게 커지게 됩니다. 이는 결국 초등교육의 질을 현재 수준보다 더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9. 국민학교 교육환경 문제

현재 국민학교의 학급당 인원수를 30인 이하로 낮출 것을 건의받고 있는 상황에서 한 반에 50여명을 수용인원으로 정해놓고, 이보다 적은 아동이 있을 경우 그 차이를 “수용능력”으로 산정하여 만 5세아를 국민학교에 입학시킬 경우에는 국민학교의 학급당 인원수는 줄어들 수 없습니다.

이것은 국민학교의 수용능력 문제와도 직결되는데, 과연 현재의 50여명 정도를 기준으로 하고 그 차이를 수용능력으로 볼 수 있는지의 문제입니다. 학급당 30명 이하의 학급은 전체 국민학교의 11만1,833학급 가운데 21%에 불과한 2만3,764학급에 지나지 않고, 나머지 79%는 30명을 넘어서 40-50명을 한 학급에 수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와 같은 학급 규모를 기준으로 해서 수용능력이 있다고 판단하는 것은 교육적으로 옳지 않으며, 그러한 만 5세아 국민학교 조기 입학은 국민학교 교육환경의 개선을 어렵게 하는 걸림돌로 작용합니다.

제안하는 대안

첫째, 한국교육개발원에서도 만 5세아 국민학교 조기입학제도의 전제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는, 유아교육의 공교육화와 국민학교 교육환경의 개선(학급당 30명 이하 수용) 등을 먼저 실행한 후에 '특수재능아'의 문제를 다루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사설학원에서 자격이 입증되지 아니한 강사들에 의해서, 특히 유아교육분야에 문외한인 강사들에 의해서 박제화된 교육을 받고 있는 아동들이나 길거리에 방치되어 있는 30만 명의 만 5세 아동이 공교육화된 유아교육을 받는 문제가 더욱 시급하며, 그들 중에 있을 지도 모르는 영재들이 유아교육을 통해서 창의적 사고와 사회성을 기르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더 심각합니다.

둘째, 이미 유아교육부문의 교육개혁안으로 발표한 유치원의 기간 학제화와 유아교육의 무상 공교육화를 통해서 모든 만 5세 유아들이 유치원 교육을 받도록 하고, 이 유치원에서 통일된 생활기록부를 작성하고 장기간에 걸친 관찰과 검사를 통해서 "특수재능아"의 발굴과 교육을 하면서 초등교육과의 연계를 강화해 나간다면, 타당한 선발방법이나 적절한 선발기준 없이 만 5세아를 국민학교에 밀어 넣는 것보다 더 많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국민학교에 학급당 1인의 보조교사를 두는 재정부담이라면 유아교육의 공교육화를 하는 편이 훨씬 더 경제적이고 효과적입니다.

셋째, 우선 농어촌지역과 도시 벽지에 유치원 무상교육을 실시한다는 방침을 더욱 확대하여 실시하고, 사립유치원의 경우에는 재정지원 방안(예를 들면 교사의 인건비 지원)을 마련하여 학부모들의 부담을 줄이면서 취원율을 향상시키는 방안을 우선 마련하며, 빠른 시일 안에 이를 확대하여 유아교육을 무상공교육화 해야 합니다.

넷째, 이에 위 개정법률(안)의 내용 중 '나'항은 폐기하고, 본 제안과 같이 유치원의 기간 학제화, 유아교육의 무상공교육화 및 국민학교 교육환경의 개선 등에 관한 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를 건의합니다.

만 5세아 국민학교 입학 반대 및 유아교육의 공교육화 추진 연대회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육아연구회, 교육개혁과 교육자치를 위한 시민회의, 미래유아교육학회, 부산유아교육학회, 우리 아이들의 보육을 걱정하는 모임,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민간가정보육시설연합회,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 유아교육을 위한 전국교사모임, 참교육시민모임,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한국교육연구소, 한국사립유치원설립자협회)

지상강연

아이들을 살려야 한다

이오덕 / 우리말 연구소

이 글은 우리말 살리는 모임의 기관지인 [우리말 우리글] 14호(94년 7월 20일 발행)에서 이오덕 선생님께서 쓰신 것입니다.

만5세아 조기입학에 대한 교육법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논의된다는 요즘의 아동조기교육 문제와 관련하여, 특히나 한글날이 있는 10월에 모두가 한번쯤은 생각하고 공감할 수 있는 글이라고 여겨 [우리네 아이들] 편집부에서는 이를 전문재인용하였습니다. 이 글이 다시금 우리의 아이들을 생각하고, 아이들의 정서와 미래, 앞으로의 우리 사회를 고민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일요일도 아닌 날 낮에 놀이터 같은 데서 놀고 있는 아이들을 보면 흔히 이런 말이 나온다. "너희들이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하다."

요즘은 유치원에서부터 아이들의 재난은 시작한다. 잘못된 부모들의 '조기 교육' 풍조에 맞춰 아이들 교육이 '지능개발' 위주로 나가고 있기 때문이다. 길에서 가방을 메고 똑같은 모자를 쓰고, 꼭 장난감 모양을 하고는 줄을 서서 걸어가는 아이들을 보면, 어찌다가 사람의 자식들이 저 모양으로 되었나 싶어 한숨이 저절로 나온다.

유치원은 그래도 괜찮다. 국민학교란 데를 들어가게 되면 그날부터 '차렷'하는 어른들의 고향소리에 꿈쩍도 해서는 안 되는 '부동자세'부터 배워야 한다. 그야말로 고생길이 흰히 트인 것이다. 고생이야 어때? 사서 한다고 하지 않았나. 몸과 마음이 다 일그러지고 시들어 죽게 되는 것이 문제지.

그러면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서너 살짜리 아기들은 정말 행복한가?

학교라는 굴 속에 들어가기 전인 이 아이들은 그래도 행복하다고 할 수밖에 없다. 다



만 위험한 시설물 때문에 어떤 사고가 일어나지 않고, 유괴당하지 않고, 그래서 어머니 할머니가 옆에서 지켜봐 주거나, 놀다가 배가 고파 집으로 가면 먹을 것을 마련해 놓고 기다리는 어머니가 있으면 말이다.

참으로 짧은 아기 시절이나마 이런 행운을 타고 난 어린이가 얼마나 될까?

그런데 우리는 아기들의 삶을, 그저 뛰놀고 노래하고 먹고 자고 하는 평화스럽고 자유스러운 것으로, 아무것도 힘든 일이 없는 것으로만 생각하기가 쉽다. 그래서 그런 상태를 천진한 동심이라 말하고, 그것을 행복이라고 본다.

아이들을 이렇게 겉으로밖에 볼 줄 모르니까 '조기교육'과 '지능개발'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날마다 먹고 놀고 자기만 하는 아이들을 그대로 두면 손해다. 하루 빨리 글자를 가르치고, 속셈을 가르치고, 논리를 가르치고, 영어를 가르치는 것이 남보다 앞서 있는 길이고 나라에 유익한 길이다! 그래서 부모고 교육자고 행정하는 사람이고 기업주들까지 한통속이 되어 아이들 채찍질하기에 정신이 없고, 온갖 장사꾼들이 아이들 상대로 돈벌이에 열을 올리는 판이 되었다.

나는 우리 말을 우리 아이들에게 제대로 이어 주어야 우리 겨레가 살아난다고 믿는다. 그래서 국민학생들에게 한문글자를 가르치고 영어를 가르치는 것과 유치원에서 글자를 가르치는 것은 절대로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요즘 들으니까 유치원 아이들한테도 무슨 과외 공부를 하도록 법을 만들려고 하는 모양이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고 이렇게 된다면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될까? 중고등학생, 국민학생은 견디다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한다. 그러나 더 어린아이들은 목숨을 끊을 줄도 모르니 어떻게 그 재난을 건널까? 그 연약한 몸과 머리는 터져버리고, 마음은 병들고 비틀어져서 끔찍한 꼴이 될 것이다.

먹고 자고 놀기만 하는 아기들 시절이 과연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무 일도 없는 때인가 살펴보자. 학자들의 말을 따르면 사람은 누구나 두 살부터 여섯 살까지, 곧 학교에 입학할 때까지, 집에서 앞으로 평생 써야 할 모국어의 가장 기본이 되고 알맹이가 되는 말

말 2.3백 개를 익힌다고 한다. 이런 사실은 반드시 학자들이 조사해서 발표한 자료가 아니라도 우리가 보통의 상식으로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우리 어른들이 만약 어떤 남의 말을 배워서 제 나라 말과 조금도 다름없이 자유스럽게 그 말을 쓰게 되도록 하려면 몇 해나 걸릴까? 5년? 10년? 20년?

어느 대학교수의 말을 들으니 영어 공부를 30년이나 해도, 어렸을 때부터 영어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같이 안 되더라고 했다. 그게 당연하다. 그런데 아이들은 제 나라 말을 겨우 5년 동안에 완전히 익힌다. 어른들이 보기에 놀고 먹고 놀고 자고 하면서 아무것도 하는 일이 없는 것 같고, 아무것도 배우는 것이 없는 것 같은데도, 그 짧은 동안에 어른들이 머리를 싸매고 수십년 동안 죽자살자 공부한 것보다 더 많은 공부를 해내는 것이다. 특별히 정신에 장애가 없다면 모든 아이들이 다 그렇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것도 하는 것이 없고, 아무일도 없는 것 같지만, 그 여리디 여린 몸과 마음이 사실은 엄청난 활동을, 두뇌 노동을 하는 것이다. 그러기에 아기들은 어른보다 더 많이 자게 된다. 활동을 많이 하니까 쉬기도 많이 해야 하는 것이다. 또 이런 까닭으로 사람의 역사를 보면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이고 어린 아기들을 가장 먼저 보호하였고, 어린이들에게는 또 다른 짐을 지우지 않고 다만 즐겁게 뛰놀고 노래하게 하고, 재미있는 얘기나 들려 주었던 것이다. 어린이들은 그저 자고 놀고 먹고 노는 동안에만 우리 어른들이 도무지 해낼 수 없는, 천재라 할 밖에 없는 모국어 공부를 아주 자연스럽게 하게 된다는 것을, 늦었지만 깨달아야 한다.

유치원만 해도 어린이들에게 잘못된 짐을 지우는 교육으로 되어가는데, 이제 또 어린이들에게 온갖 과외 공부를 시키게 될 것을 생각하니 소름이 끼친다. 아이들이 아무리 괴상한 동물로 되어가고 죽어가도 도무지 그것을 느끼는 감각이 없어진 듯한 어른들, 이 어른들은 어디까지 아이들을 몰아갈 작정인가? 도대체 이 나라가 왜 이렇게 되어가는지, 왜 우리 겨레가 이 모양으로 앞이 막 막혀야 하는지, 한숨이 나올 뿐이다. 거듭 말하지만 어린 아이들은 공백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다. 아이들의 시간은 가장 귀한 것으로 꼭 차 있다. 거기에다 또 추악한 어른들이 잡동사니를 쑤셔 넣는 것은 인권을 짓밟는 범죄행위가 된다. 아이들의 영혼을 폭파시키는 이 범죄행위를 우리는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 아이들을 살리는 일만이 우리들의 희망이다.

특집

독일탐방기(1)

박주현 / 변호사

나는 1994년 8월 23일부터 1995년 2월 14일까지 약 6개월간 법관연수 가는 남편과 함께 아이 둘을 데리고 독일 뮌헨에서 머물렀다. 사람들은 나에게 공부하러 가느냐고 물었지만 나는 그저 '식순이로 따라간다'라는 정도로만 대답하였고, 떠나기 전에는 그저 그런 정도로만 생각했었던 것이다. 그런데 지금 돌이켜 보면, 독일에서 공부하지 않고 그 시간에 독일 사람들을 만나고 거리를 거닐고 그 사회에 대하여 생각하고 느낄 수 있었던 것이 오히려 더 많은 것을 나에게 가르쳐주지 않았나 생각해 본다.

우선 처음 독일 뮌헨에 도착하였을 때 느낀 점은 독일의 3대 도시 중의 하나인 뮌헨이 코 끝에 스며드는 공기가 너무 맑았다는 것과, 모든 건물이 5층 이내로 제한되어 있어서(올림픽 선수촌 아파트만 빼고) 아늑한 느낌을 주었고, 무엇보다도 정갈하기 그지 없었으며, 또 도시가 멀리 퍼져 있어서인지 어디라도 조용했다. 한마디로 착 가라앉은 느낌, 그것이였다.

처음 도착했을 때는 밤이었는데, 정해진 보충(아파트와 연립의 중간 정도 되는 5층 집으로, 아파트와는 달리 경비가 없이 모든 집들이 건물의 현관 열쇠를 가지고 있고, 현관이 길쪽으로 나 있으며, 연립과는 달리 관리인이 있어서 난방 등 모든 일을 중앙식으로 관리해주는데, 뮌헨 시내의 주거형태는 거의 보충형태이다)에 들어가니 사방이 적막한데, 창문으로는 별들이 반짝였다.

독일의 모든 창문은 널찍하고 페어그라스이며, 유리 한쪽이 창문 하나인 여닫이문이다. 특이한 것은 손잡이를 돌리는 방향에 따라 옆으로도 열 수 있고, 창문 윗쪽만 앞으로 기울어지게도 할 수 있고, 바깥쪽으로는 덧문 겸 브라인드를 올렸다 내렸다 할 수 있다.

나중에 안 일이지만, 유럽에서도 나라마다 창문 모양과 기능이 다 달랐는데, 독일의 창문은 안에서 바깥을 보기가 시원스럽고, 아기자기 예쁜 맛은 없지만 깔끔해 보이며, 또 튼튼하고 실용적이었다.

창문이 널찍한 통유리로 되어 있으니

이렇게 늘상 하늘과 별과 나무와 풀들을 보면서
살고 있다는 것에 대한 부러움은 너무나 강력하고 또
현실적인 것이었다.

잠자리에 들어서도 별들이 잘 보였고, 4층 높이까지 자란 큰 나무들이 보여서 마치 별장같은 느낌을 주었다. 분명히 시내 한복판인데도 말이다. 살면서 점점 확연하게 느끼게 된 것이지만, 매일같이 생활하면서 나무들을 가까이 보고 매일 밤 잠자리에서 별들을 본다는 것이 사람의 마음을 깨끗하고 넉넉하게 해 주는 것임을 실감하였다. 그것은 어쩌면 대학친구들 중 시골에서 자란 친구, 중소도시에서 자란 친구, 대도시에서 자란 친구의 정서가 다르며, 시골에서 자란 친구들이 가장 정서가 풍부하고 순수하였다는 경험과도 비슷하였다. 그런데 독일에서는 도시나 농촌이나,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이렇게 늘상 하늘과 별과 나무와 풀들을 보면서 살고 있다는 것이 그저 부러울 따름이었고, 그 부러움은 너무나 강력하고 또 현실적인 것이어서 (콘크리트와 아스팔트만 보고 자란 우리 아이들의 정서문제를 생각해 보라!) 서울에 돌아와서 한동안은 집 근처의 잔디공원, 텃밭 수 있는 풀밭과 햇볕을 가려줄 나무와 앉아서 책을 읽을 수 있는 나무의자와 아이들을 붙잡고 산책할 수 있는 오솔길이 있는, 걸어서 5분 거리의 조그만 공원이 필요하다고,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는, 아이들이 어른들이 그래서 사회 전체가 정

서적으로 문화적으로 그래서 합리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고 역설하고 다녔다. 물론 얼마간 후에는 "웬 잠꼬대?"하는 사람들의 시선에 풀이 죽어 그 이야기가 쏙 들어갔지만 말이다.

뮌헨의 집에서 20미터 정도 가면 레오폴드 파크라는 조그만 공원이 있다. 그 공원 한쪽에는 유치원이 있고, 또 한쪽에는 아이들 놀이터가 있으며, 큰 길로 나가는 쪽에는 2,000원이면 누구라도 잘 먹을 수 있는 대학식당이 있고, 공원 안은 드러누울 수 있는 잔디밭 사이로 오솔길과 오솔길 가의 이곳저곳 벤치가 있었다.

그리고 5분 정도 걸어나가면, 그 공원 안을 한바퀴 도는데 하루로는 모자라는 영국공원이 있는데, 그 공원은 도시 중심에 길다랗게 누워 있는게 넓이가 도시 전체의 4분의 1은 족히 되었다. 그 공원에



인동안은 풀밭과 나무와 나무의자와, 아이들을 붙잡고 산책할 수 있는
오솔길이 있는, 걸어서 5분 거리의 조그만 공원이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고 역설하고 다녔다

벌거벗고 누워있는 선남선녀들이 많다고 해서 구경간다고 나섰다가 몇시간을 쏘다 났지만 도대체 어디에서 벗고 누웠는지 발견을 못해서 그냥 돌아온 일도 있다. 하긴 벗고 누워있는 사람 한 사람을 보긴 보았는데, 운동장보다도 훨씬 넓은 잔디밭 저 끝에 누워있는데, 너무 멀어서 잘 보이지도 않고, 자세히 본다고 그 사람 누워있는 곳으로 걸어갈 수도 없는 노릇이니 내가 나체주의자가 되지 않고서는 나체주의자 구경하기도 힘들게 지지리도 공원은 넓었다.

만약 우리나라의 바글바글거리는 공원에서 몇몇 사람들이 벗고 누웠다면 그게 구경거리 포르노가 아니고 무엇이랴. 문화현상이란 그 사회의 토양과 조건을 고려치 않고 평면비교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

었다.

그 넓디넓은 잔디공원은 1789년에 만들어졌다는데, 1789년 프랑스혁명이 일어나자 뮌헨과 바이에른 지방의 영주가 시민들을 달래고 무마하기 위해 이 아름다운 공원을 만들었다 한다. 유럽에서 프랑스혁명의 영향은 이렇게 구체구석에 스며있었고, 더 놀라운 것은 도심 한복판의 이렇게 큰 공원을 200여년이나 아파트 부지로 팔아 넘기지 않고 지켜온 시민들의 압력과 정부, 지방자치단체의 양식이었다.

한사람 한사람을 놓고 보면 딱딱하고 재미없기 그지 없어 보이는 독일사람들이, 사회적으로는 이렇게 멋지게 살고 있다는 것이 '시민사회의 역사와 경륜'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생각해봅시다(1)

우리 아이도 이렇게 키우고 있진 않은가요?

과보호가 낳은 '기형천재' - 한겨레신문 10월 11일자 해외화제에 의하면 말입니다, 중국에선 엄격한 1가구1자녀 정책으로 인한 자녀 과잉보호로 취학전 아이들이 피아노를 연주하고 고대시를 암송하면서도 자기 옷을 혼자 입지 못하거나 신발끈을 혼자 매지 못하는 아이들이 과반수 이상이라고 합니다.

아무리 귀한 자식이라고 하지만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으로 자라난다면 - 글썄요, 잠시 천재 대우는 받을지 몰라도 그 아이의 인생은 무척이나 고달프겠지요.

좋은 그림책 소개



엘머

데이비드 매키 글, 그림 / 이성출판 / 5,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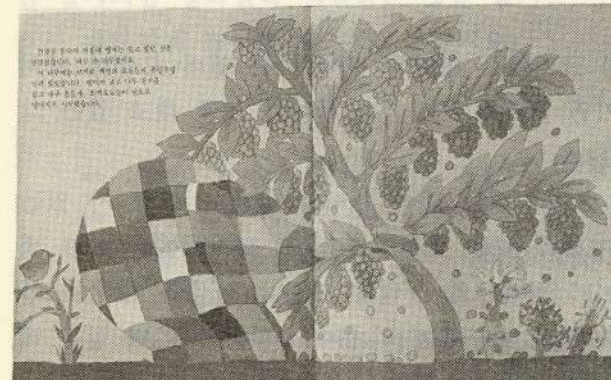
"옛날에 한 무리의 코끼리가 살고 있었어요"라고 시작하는 이 그림책은 앞으로 나올 코끼리들이 동물원의 코끼리가 아닌 상상의 나라 코끼리임을 아이들에게 알려주고 시작합니다. 코끼리 엘머는 같이 사는 다른 코끼리들과는 달리 알록달록 여러 색깔로 된 코끼리입니다. 다른 코끼리와 색깔이 다르니 일이 무슨 일이 생길 것만 같습니다. 엘머는 친구들을 항상 즐겁게 하는 코끼리였어요. 어느날 왜 나는 친구들과 다른 색깔일까? 고민하다가 집을 나와 무언가를 찾으러 갑니다. 한참을 걷다가 찾은 것은 코끼리 색깔의 포도가 주렁주렁 달린 포도나무입니다. 포도를 따서 몸에 묻혀 친구들과 똑같은 색깔이 되었어요.

집에 돌아온 엘머를 친구들은 알아 보지 못하고, 친구들은 엘머가 없어서 모두 심심해 합니다. 참다 못한 엘머는 큰 소리로 웃었어요. 웃음소리로 엘머를 알아 본 친구들은 반가와 웃어댑니다. 마침 내린 비에 씻겨 엘머의 알록달록한 색깔이 드러나자 친구들은 더욱 신이 납니다. 친구들과 엘머는 해마다 이 날을 '엘머의 날'로 정하고 이 날만은 엘머는 보통 코끼리의 색을 칠하고 친구들은 엘머의 몸색깔을 칠하기로 했습니다.

책표지에 '엘머'라는 제목과 알록달록한 엘머가 그려져 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그림을 그리던 아이들이 어느날 네모칸을 만들고 여러 색을 칠하기에 열중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의 그림을 작가가 보았는지 모르지만 아이들은 자기가 하던 식의 알록달록한

엘머의 몸 색깔에 관심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이 그림책에는 많은 코끼리들이 나오지만 정말 똑같은 코끼리는 없습니다. 그만큼 작가가 하나하나 신경을 써서 그렸기 때문이겠지요. 벌써 작가는 엘머와 친구 코끼리들을 살아있는 아이들의 친구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림은



색연필과 같은 가는 선과 옅은 색을 주로 써서 환상의 세계를 잘 그렸습니다. 그리고 군데군데 크레파스와 물감을 이용해서 글의 내용을 그림으로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엘머를 쳐다보는 듯한 한쪽 방향의 코끼리들 무리가 첫장면이고 그 다음에는 우리의 친구 엘머가 화면 가득하게 크게 그려져서 아이들의 시선을 집중시키는 등 그림을 통해서도 글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친구와 같아지고 싶은 엘머의 마음, 그냥 엘머가 좋은 친구들, 그래도 엘머의 마음을 이해하고 한번쯤 반대의 색깔을 해 보는 날을 정하는 내용의 이 그림책은, 서로 다른 입장에서 친구를 이해하고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따뜻한 주제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교훈적이지 않고 아이들의 세계에서 있을 일을 부드럽게 그려나가 읽는 이로 하여금 따뜻함을 느끼게 합니다.

다만 아이들이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서커스 행진을 경험해 보지 않아 신나는 감정을 느끼기에는 다소 부족할 듯하여 아쉽습니다.

이야기 글이라 어린 연령의 아이들보다는 이야기글을 이해하는 4, 5세 이상의 아동이 보면 좋을 듯합니다. 그래도 그림이 글의 내용을 잘 반영하고 있어서 조금 더 어린 연령도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읽어주시기 전에 아이들에게 그림책을 먼저 쥐어 주세요. 한참 보고 나서 읽어준다면 아이들이 집중해서 들겠지요. 그리고 선생님은 그림책을 여러번 읽으셔서 그림책을 보지 않고도 이야기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돌아온 엘머

데이비드 매키 글, 그림 / 이성출판 / 5,000원

‘엘머’ 그림책의 후속편인 이 그림책의 표지에는 엘머와 강에 비친 엘머 모습이 보이는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책 장을 넘기면 제목과 두마리의 엘머가 코를 대고 있는 그림이 나옵니다. 자 이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첫장을 넘기면 곰곰히 생각하는 여러 코끼리의 모습이 보이고 엘머는 그냥 서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를 뒤면 엘머의 날 행사가 있을 예정인데 친구 코끼리들은 어떤 색을 칠할 건지 생각하는 중이고 엘머는 이미 회색으로 정해져 있으니 심심할 밖에요. 엘머는 재미있는 일이 없을까? 궁리를 하다가 한 친구에게 다가가 속닥속닥 어떤 일을 계획합니다. 무슨 일일까요?



한밤중에 엘머는 어떤 일을 저질러 놓았지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 모든 친구들의 몸은 엘머와 똑같은 색깔로 바뀌어 있어 모두 엘머인 줄 압니다. 엘머의 장난인줄 알아차린 친구들은 엘머를 찾기위해 모두 강에 몰려가 목욕을 했어요. 코끼리들은 모두 원래대로 회색빛이 되었어요. 그런데 엘머는 보이지 않네요. 회색코끼리중 한 코끼리가 자기가 엘머라 하면서 똑같이 회색이 되었다고 합니다. 친구들은 엘머가 이전과 같은 색깔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그때 어떤 코끼리가, 회색빛 엘머가 씻겨 나간 물감이 있는 강에 들어가서 몸에 물을 끼얹으면 색을 도로 찾을 수 있을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엘머는 강을 헤엄쳐 가다가 건너편 나무들 사이로 사라지고 잠시 후 알록달록한 엘머가 나타납니다. 친구들을 엘머를 찾았다고 좋아하는데 그때 회색빛 코끼리 한마리가 나타납니다. 엘머와 엘머의 한 친구가 장난을 친 것입니다. 친구들은 모두 웃음을 터뜨리고 강물에 뛰어들어 엘머와 장난을 치며 노입니다.

장난꾸러기 엘머가 또 친구들을 즐겁게 했군요. 이번에는 친구와 속닥속닥해서 친구들에게 장난을 친 엘머, 아직 우리 아이들이 엘머처럼 피부리기 명수가 되지는 못하지만 가끔 친구들을 숨겨놓고는 없어졌다며 선생님을 놀리는 장난을 하는 걸 보면 엘머와 우리 아이들은 친구겠지요.

이 그림책을 읽어주기 전에 동물원에 가서 코끼리를 본다면 더 좋겠지요. 그리고 한번 엘머처럼 알록달록 색칠하는 것을 즐기는 아이들이 있다면 한번 엘머를 그려보고 올려서 재미있게 놀이를 할 수도 있겠지요.

** 소개된 그림책을 10월 말까지 주문하시면 우편으로 보내드립니다.

** <좋은 그림책 소개>에서 나온 책을 아이들에게 읽어 주시고 글을 보내주세요. 다소 다른 평가도 있을 터이고, 또 이 글에 쓰여있지 않은 중요한 평가도 나오리라 생각합니다. 아울러 아이들의 눈으로 이 그림책을 평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림책의 주인은 아이들이니까요. 좋은 글을 기대합니다.

평가서를 보내주시면 '그림책 교사모임(가칭)'에서 좋은 책 한권을 보내드립니다.

연장연구

믹 잉크펜의 『재롱이의 생일날』 을 아이들과 함께 읽고 나서

이현경 / 그림책 소모임

새터어린이집 교사

아이들이 좋아하는 노래 가운데 하나가 생일노래인 것은 확실하고, 작은 아이들일지라도 노래 속에 자신의 이름이 불려지면 촛불을 끄는 흥내를 내면서 기분을 낼 줄 안다. 그런 탓에 이 그림책은 생일이라는 제목만으로도 아이들의 흥미를 끌기에 충분한 것이다.

내용을 보자면 재롱이는 자신의 생일날을 위해 친구인 우람이, 얼룩이, 복실이에게 카드를 쓰고 생일케익을 진지하게 만드는 데부터 출발하고 있다. 아직 날짜 개념이 없는 5살 재롱이는 '내일 12시에 와줘' 하고만 쓰게 되는데 생일 하루 전에는 시간이 없어 돌리지 못하고 생일날 아침 돌리게 되면서 일어나는 사건이다.

우리 아이들(편집자 주 : 새터어린이집은 영아전담시설임)에게도 아직은 어제, 오늘, 내일이라는 시간개념이 없기 때문에 그림책의 내용으로 완전히 이해하는 것은 어려웠다. 다만, 말로써 알아듣기보다 그림을 통해 친구들이 오지 않았고 재롱이 혼자 케익을 다 먹어치운 후 다음날 친구들이 오기까지 잠만 잤다는 것을 안다. 그리고 나중에 복실이 선물로 준비해온 케익을 가지고 생일잔치를 한다는 것에서 아이들은 너무나 신이 난다.

이 그림책은 재롱이의 표정, 몸짓에서 감정을 읽을 수 있도록 했다는 데서 작가의 노력이 보인다. 풍선만 보더라도 아이들에게 너무나 익숙한 것인데 시간이 지나면서 풍선 한개가 쪼그라지다가 결국 떨어지게 된다. 시간의 변화는 모르더라도 아이들은 풍선이 떨어졌다는 것은 금새 발견하게 된다. 그 풍선은 어떻게 되었을까? 아이들은 호기심을 갖고 다음장을 기대하게 된다.

믹 잉크펜은 5살 아이들이면 경험해보았을 만한 것들을 적절히 사용했다. 물감, 붓, 풍선, 잠자는 모습, 케익, 밀가루를 가지고 밀대로 미는 것 등은 결코 낯설은 것이 아니다. 다만, 케익은 직접 만들어 본 경험은 없으므로 활동시간에 밀가루 점토를 가지고 여러가지 재료를 써서 케익만들기를 해 보는 것도 좋다.



아이들에게 읽어주기 전에 집에서 읽어보았을 때는 이 그림책이 주는 느낌을 어떻게 전달해줄까 하는 고민을 했었다. 읽으면서도 재롱이외엔 다른 강아지 이름을 별로 마음에 두지 않았다. 그런데 얼룩이, 복실이, 우람이가 찾아오는 장면에서 아이들은 누가 우람이예요? 하면서 한마리 한마리의 강아지를 짚어가는 것이었다. 아이들에게는 그게 어른이 보는 그냥 강아지가 아닌 내 친구 재롱이, 내 친구 우람이가 되듯 이름이 소중한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다시 주의깊게 강아지 한마리 한마리를 살펴보면 입을 벌리고 있는 강아지가 한마리도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믹 잉크펜이 의도적으로 입의 움직임을 크게 넣지 않고 움직임을 표현했다는 생각이 든다.

이 그림책에서 아쉬운 점은 번역이 매끄럽지 못하다는 것이지만 교사가 입말로 읽어준다면 별 문제가 없을 것이다.



작은 기획

쉽게 배우는 사진, 비디오 고실(2)

김태일 / [푸른영상] 연출가

편집부에서 : 지난 9월호에서는 사진과 비디오를 보다 쉽게 구입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었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사진을 찍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사항인 노출과 감도, 셔터스피드에 대한 이야기를 실습니다.



초창기 사진에 대해 '영혼을 빼앗아간다'는 이야기가 있었다. 너무도 선명하게 자신의 모습을 담아내는 거울같은 존재에 놀란 표현이기도 하다.

사진은 빛과 그림자의 예술이라고 한다. 그만큼 빛은 삼라만상의 형체를 드러내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사진의 원리는 바로 이 빛을 어떻게 이용하느냐에 대한 연구에서 출발한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진촬영을 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알아두어야 하는 것은 어떤 빛에서 얼마만큼의 렌즈를 통해서 필름에 감광되느냐다.

사진에서 중요한 빛의 양을 조절해주는 기능을 가진 것이 조리개인데, 렌즈에 쓰여 있는 F 1.4, 2, 2.8, 4, 5.6, 7, 11 등의 수치가 주목해야 된다.

수치는 어려워 할 부분이 아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되는데 빛의 세기를 적당하게 조절하는 조리개의 구멍의 크기에 대한 수치로, 사람의 눈과 같은 원리를 가진 것이다. 한 여름의 태양을 쳐다 볼 때 우리의 눈은 거의 감기는 것과 같이 어떤 피사체를 촬영할 때 제대로 사진이 되기 위해서는 빛이 적당해야 된다. 빛이 많아도, 적어도 안 되는 것이다. 요즘은 수동카메라도 조리개의 적정수치를 나타내는 표시등이 부착되어 있어 편리하

노출, 감도, 셔터스피드, 세가지는 각 단계마다 상호작용을 함으로 세 기능을 제대로 알면 정확한 사진을 촬영할 수 있다.

다.

빛을 조절하는 것은 렌즈의 조리개만 아니라 또 다른 기능이 하고 있는 것이 있다. 필름의 감도이다.

피사체체는 사람이 보는 눈처럼 보이지 않는다. 사진은 사람의 눈처럼 적응력이 없기 때문인데, 그것을 보정해주는 또 하나의 기능이 '감도'이다. 시중 필름을 사게 되면 100, 2000이라고 적혀있는 수치가 바로 감도를 뜻하는 것이다. 보통 쓰는 것이 100인데 이것 보다는 높으면 고감도이고 낮으면 저감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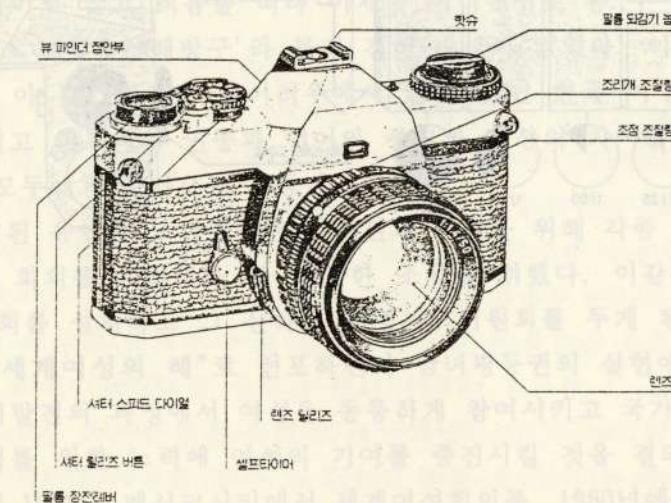
이것은 필름입자의 크기를 기준으로 정해진다. 빛이 약하면 고감도를 쓰고 강하면 저감도를 쓴다. 즉 어두운 실내에서 후레쉬없이 촬영하려면 감도가 높은 필름을 쓰면 된다. 보통 400, 800, 1600 정도를 쓰면 어두운 곳에서 후레쉬 없이 쓸 수 있다.

또 하나의 빛의 양을 조절하는 기능은 셔터스피드이다.

표시는 1/30, 1/60, 125, 250, 500, 1000, 2000 으로 쓰여진 수치로 썩여져 있다.

이것은 셔터의 속도를 말하는데 셔터속도의 길고 짧음을 통해 빛의 양을 조절하고 움직이는 물체의 정지된 상의 모습을 선명하게 촬영하는 기능을 가진다. 셔터스피드는 적

35mm SLR 카메라



당한 속도를 가져야만 제대로 찍힌다. 그러므로 셔터 스피드를 조절함으로써 다양한 느낌을 표현할 수 있게 된다. 그러므로 노출, 감도, 셔터스피드 세가지는 각 단계마다 상호 작용을 함으로 세 기능을 제대로 알면 정확한 사진을 촬영할 수 있다.

즉 노출이 한 단계 부족하면 감도를 높히던가, 셔터스피드를 낮춰주면 된다. 사진촬영에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중요한 기능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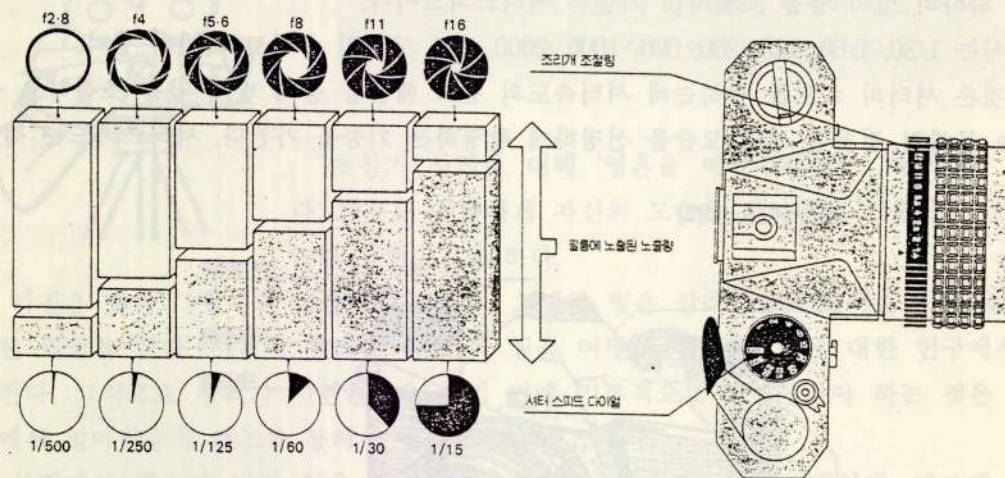
예를 들면>

노출(F)	1.4	2	2.8	4	5.6	8	11	22
감도		25	50	100	200	400	800	
셔터 스피드	1/4	1/8	1/15	1/30	1/60	1/125	1/250	1/500 1/1000 1/2000

똑같은 사진을 찍을 때에 다음과 같은 응용이 가능하다.

노출(F)	4	5.6	4	5.6
감도	100	100	200	200
셔터 스피드	1/250	1/125	1/500	1/250

조리개치와 셔터 스피드의 조



지상강연

“여성의 눈으로 세계를 보자”

<'95 북경 제4차 세계여성대회 참관기>

김명륜 / 한국여성단체연합 홍보간사

1. 북경의 감동과 지난 세계여성대회에 대하여

우리는 흔히 민중들의 이해와 요구가 참되게 실현되는 장을 일러 '해방구'라 칭해 왔다. 95년 북경과 화이러우, 특히 NGO(Non-Governmental Organization) 포럼이 열렸던 화이러우를 한마디로 표현하라고 한다면 필자는 주저않고 “여성들의 해방구”였다고 할 것이다. 거리에서 만나건, 워싱턴에서 만나건, 호텔에서 만나건, 식당에서 만나건, 부스에서 만나건간에 누구나가 동지라는 친밀감에 뜨거운 눈빛으로 인사하고, 각자의 브로셔를 나누며 자신들의 가장 절박한 문제를 알리고 공유했던 기억들 그리고 어떤 문제에 대해서든지 자신의 주체적인 힘으로 해결하려는 당찬 의지들은 나이의 많고 적음을 떠나 이제껏 어디에서도 볼 수 없었던 커다란 공동체를 이루었고 그것은 '해방구'라 불러 전혀 손색이 없었다. 이것은 필자만의 개인적인 경험이 아니라 열흘간 화이러우에서 함께 했던 한국 여성 NGO본부와 한국 참가자들, 그리고 피부색과 인종과 언어와 종교와 사상의 차이를 뛰어넘고 만났던 3만여 여성들 모두에게 다가오는 감동이었다.

1945년 설립된 유엔은 남녀평등권의 실현과 확립을 위해 각종 조약과 선언을 채택하고 정부간 회의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조치를 취했다. 이같은 맥락에서 설립 직후 인권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산하에 여성지위위원회를 두게 된다. 특히나 유엔은 1975년을 “세계여성의 해”로 선포하면서 남녀평등권의 실현에 총력을 다할 것과 국가와 세계발전의 과정에서 여성을 동등하게 참여시키고 국가간의 우호와 협력 증진, 세계평화를 위한 노력에 여성의 기여를 증진시킬 것을 결의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1975년 멕시코시티에서 세계여성회의를, 1980년에는 코펜하겐 세계



여성의 10년중간년 회의, 1985년 나이로비 세계여성의 10년 최종년 회의를 열었다. 나이로비회의에서 채택된 「2000년을 향한 여성발전전략」은 1986년부터 2000년까지의 기간에 여성의 지위향상을 위해 실시되어야 할 장래전략 및 세계여성의 10년간 목표와 목적의 달성에 있어서 장애를 극복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이다. 나이로비 전략은 남녀평등권을 철저히 준수하고 법적·실질적 차별을 제거하는 것이 인적자원을 개발하는데 필요한 첫번째 단계라고 설정하고 여성의 직장과 사회로의 진출은 인간적이고 진보적인 사회를 구축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서 파악했다.

2. 제4차 북경세계여성대회는

“여성의 눈으로 세계를 보자”는 '95 북경 제4차 세계여성회의의 슬로건이다. 「평등, 발전, 평화를 위한 행동」을 주제로 9월 4일에서 15일까지 북경에서 열린 UN 산하 정부간(GO)회의와, 그보다 앞서 NGO 포럼이 8월 30일부터 열흘간 화이러우에서 열렸다.

북경대회는 세가지 주요한 목적을 가지고 진행되었다. 첫째 1985년 나이로비 미래전략이 얼마나 이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것, 둘째 여성지위향상에 근본장애가 되는 중요문제를 토의하는 것, 즉 정책결정과정에서의 참여, 빈곤, 건강, 교육, 폭력, 인권, 여성과 평화문제 등, 셋째 여성의 평등, 발전, 평화를 이루기 위한 실현가능하고 효과적인 행동을 위한 행동강령을 채택하는 것 등이었다. 우리나라에서도 한국여성단체연합을 비롯한 96개 여성단체에서 300여명이 한국여성NGO위원회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등 여성계에서는 UN의 어느 회의에보다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준비해 왔다.

제4차 북경 세계여성대회가 지금까지의 여성대회에 비해 가장 발전된 모습은, GO회의에 민간단체들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서 NGO대회가 함께 열리는 것이 매우 활성화 되었다는 것이다. 각 나라에서 참가한 NGO 포럼 참가자수가 3만여명에 달하고 열흘간 5000여개의 워샷이 열렸다는 것만 보아도 한눈에 북경은 이제 세계여성대회가 더이상 정부의 입장만을 발표하고 주장하는 장이 아님을 알 수 있었다. 유엔에서도 민간단체들의 자유로운 문제제기와 대안제시가 GO회의를 훨씬 활성화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여 이러한 형식을 더욱 장려하고 있는 입장이다. 물론 GO회의와 NGO대회는 그 형식과 내용에 있어서 매우 큰 차이가 있다. 95년 NGO대회는 그야말로 대동의 장이었다. 역사상 가장 많은 참가자수도 그렇고, 참가자들이 미리 신청한 워샷과 세미나등을 통해 자신들의 가장 절실한 문제를 세계에 알리는 모습과 조금이라도 색다른 모습으로 선전해 - 춤, 노래, 극, 서커스, 포스터, 비디

오등의 매체이용-효과를 증대시키려는 노력은 가히 세계각국 여성운동의 현주소를 한눈에 볼 수 있게 해주는 산 교육장이었다.

15일에 막을 내린 본회의에서는 남녀간의 평등은 물론 정치·경제·사회 등 각 분야에서 여성의 실제적인 권한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논의되었고 바로 그것은 여성운동사에서 또하나의 커다란 획을 그으며 각국의 여성의 지위를 가늠하는 잣대가 될 것이다. 물론 국가간 경제력과 종교·관습 차이에서 오는 선진국과 개도국그룹, 가톨릭과 이슬람국가를 비롯한 종교집단과 세속적 여성운동 세력들간의 의견차이를 모두 극복하기는 어려웠지만 2000년대를 향한 여성운동의 방향과 목표를 설정하는 커다란 성과를 올렸다. 이번 회의에서 주요 특징중의 하나는 여성문제가 더이상 주변적·부수적 문제가 아니라 국제적인 중심주제임을 확인했다는 것이다. 최근 열렸던 여러 세계회의에서 하나의 주제로만 다뤄졌던 여성문제가 이번 대회를 통해서 종합적으로 부각돼 앞으로는 여성문제가 모든 분야에서 주된 안건으로 논의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또한 ‘성’의 영문표기를 이전의 SEX에서 GENDER로 바꾸기로 합의한 것도 성과중의 하나이다. 이것은 생물학적인 의미가 강한 ‘성’에서 사회학적 의미가 포함된 ‘성’으로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으로 앞으로 유엔산하의 공식회의에서는 ‘성’을 표기할 때 ‘SEX’라는 단어를 쓰지 않게 되었다. ‘낙태 허용문제’도 큰 논란을 빚었는데 결국 “합법적 낙태를 허용하지 않기”로 최종합의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낙태가 가족계획의 수단으로 사용해서는 안되고, 안전하지 않은 낙태는 여성의 건강에 큰 위해요소가 되며, 낙태에 따른 합병증과 후유증을 없애기 위해 교육과 상담이 이뤄져야 한다고 명시하여 여성의 건강이 사회적 문제임을 지적하였다.

3. 한국 여성 NGO위원회의 활동과 성과

한국 여성 NGO위원회 본부는 이번 대회에 일본군위안부문제와 성희롱사건을 가장 큰 선전쟁점으로 부각시켜, 열흘간 하루에 적어도 두차례씩 한국적인 시위형태로 선전전을 벌였고, 필리핀 등 동아시아 피해당사국과 연대하여 국제 심포지움을 천여석이 꽉 찰 정도의 세계적 관심속에 개최하고, 정신대할머니의 증언을 듣는 등 다종다양한 형태의 시위와 로비를 벌였다. 우리가 벌였던 시위는 NGO대회중 가장 집중적인 지목을 받아 NGO포럼 신문(대회일간지)의 일면을 사진과 함께 장식하기도 하였고, 한국을 비롯해 대회장에 참석한 각국의 언론과 다른나라 참석자들의 호응에 힘입어 정부회의에 일정정도 압력을 행사하였다.

이러한 활동들과 로비에 힘입어 북경 세계여성회의의 행동강령에서는 “무장갈등 상황에서 행해진 강간은 전쟁범죄이고 인도에 반하는 중대 범죄이며, 어떤 경우에

는 민족말살에 해당하는 범죄임을 재확인한다. 또한 전쟁 중에 행해진 여성에 대한 폭력 특히 조직적인 강간, 성노예에 대해서는 국제인권법의 적용을 받아야 하며, 이러한 범죄를 저지른 자는 기소되고 피해여성에게는 전적인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내용을 통과시켰다. 이제 여기서 일본군 위안부가 이 조항에서 말하는 성노예이며, 조직적 강간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일본정부가 부인하기는 매우 어렵게 되었다. 성희롱문제 또한 NGO대회 신문에 기사화 되었으며 행동강령에서 성희롱을 성폭력에 대한 범주에 포함시켜 각 나라는 성희롱을 처벌하는 법근거를 마련하여야 하게 되었다.

물론 이 행동강령 자체가 법적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가입국은 행동강령에 근거하여 국내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이행과정을 정기적으로 UN에 보고해야 하는 의무를 갖기 때문에 그 의의는 상당하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은 과거 제3차 세계여성대회 이후 남녀고용평등법 등의 여성관련 법제·개정운동이 더욱 힘을 얻을 수 있었다는 점을 떠올리며, 앞으로의 관련법 정비에 있어서 하나의 커다란 발전적 조건으로 작용할 것이라 여겨지기 때문이다. 법정비 작업과 더불어 성에 대한 관점의 전환, 사회적 관계의 개념전환 등이 북경대회 이후 국내 여성운동가들이 실천해야 할 과제들의 한 부분이라 할 수 있겠다.

4. 맺으며

물론 여성의 지위가 지난 10년간 몇몇 중요한 측면에서 진전을 이루긴 했지만 그것은 불균등하게 이루어졌다. 남녀간의 불평등은 지속되고 주요 걸림돌은 여전히 남아있다. 그러나 이번의 행동강령이 각국에서 지켜질 수 있도록 NGO들이 총매진한다면 제5차 세계여성회의 때에는 한발자국 더 나아간 여성의 지위를 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역사란 결코 후퇴하지 않듯이, 여성문제 또한 발전적인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여명을 보여주고 있다. 이제 남은 것은 북경선언이 그야말로 선언에 그치지 않도록 여성 스스로 그리고 뜻을 함께하는 남성들의 연대로 우리가 투쟁해 나가는 것 뿐이다.

시사말쑈이

출산, 생리.... 여성만의 책임인가?

편집부

1953년 제정된 근로기준법의 '모성보호' 규정은 우리나라 모성보호정책의 첫 효시가 되었다. 그후로 산후 30일의 강제휴가규정 첨가, 육아휴직과 보육시설 설치규정 명문화, 90일 이상 육아휴직을 주는 사업자에게 국가의 육아휴직장려금 지급규정 삽입에 이어 지난 8월 개정된 남녀고용평등법에 남녀공무원 모두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규정 신설 등의 과정을 거치는데 이르렀다.

한편 출산 휴가기간 여성노동자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않을 시엔 2년 이내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그런데 정부는 지난 4일 근로기준법상 보장되어있는 매월 1일의 유급 생리휴가와 60일의 유급 산전산후휴가를 무급으로 전환할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한다.

이유인즉슨 국가발전을 위해서는 여성취업의 확대가 불가피한데 현행 노동관계법상 여성인력에 대한 보호장치가 지나치다보니 기업들로 하여금 여성고용을 꺼리게 하는 요인이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여성취업 확대방안과 함께 과도한 여성인력 보호장치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나름의 변명을 정부에서는 늘어놓고 있다.

근로기준법을 개정하면서 까지 추진하려는 것은, 여성의 모성보호는 '너의 일이니 너가 알아서 하라'는 입장에서 기업의 부담비용만은 줄여줘야겠다는 명분에만 집착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늘 따라붙는 -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다'는 것은 빛 좋은 개살구가 될 수밖에 없는 노릇이다. 왜냐하면 여성이 진정으로 사회에 참여하여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인력이 될 수 있는 데에는 사회적 환경, 즉 인류의 재생산을 맡고 있는 여성의 모성보호가 우선적으로 마련되어 있어야만 하기 때문이다.

세계화를 부르짖는 이 마당에 세계적인 모성보호 추세도, 그간의 현행법상에도 역행되는 이번 개정안은 반드시 폐기되어야만 마땅할 것이다.

연장소식

딩다다 쿵따쿵~

서은희 / 국악소모임

어깨동무어린이집 교사

국악소모임은 '우리 음악'에 관심있는 교사 6명이 모여 지난 4월 12일부터 8월말까지 매주 모임을 가져왔다.

초기 두세번의 만남에서는 우리가 무엇을 하기 위해 모였는지를 정확히 하고자 하는 고민이 있었고, 고민의 결과로 모임의 성원 모두 풍물을 함께 배우기로 하고는 5월부터 8월 말까지 4개월간 구로지역에 있는 다우리노동회관에서 매주 수요일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풍물과 민요 배우기, 전래동요에 관한 세미나를 했다.

풍물을 배우는 동안 우리 회원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한명이 중간에 그만 두게 되었고, 한 교사는 다니던 어린이집이 내부사정으로 문을 닫게 되어 실업자(?)가 되기도 하였다. 또 한 교사는 보육교사에서 공부방 교사로 전업을 하기도 했다.

일상적인 보육교사의 업무 속에서 주1회 풍물을 배우기 위해 시간을 낸다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었다. 여러 어려움이 있었지만 어쨌든 우리는 4개월의 풍물 기초강습을 마쳤다. 4개월간의 풍물강습은 국악모임을 처음 시작할 때 가졌던 막막함을 조금은 여리게 해주었지만 그동안 우리들의 일상생활과 너무 동떨어져 있던 우리 음악을 내 것으로 만들어 아이들과 함께 하는데는 아직도 역부족이다.

'왜 우리는 어렸을 때 우리의 음악을 접해보지 못했을까? 왜 그 누구도 우리의 노래와 놀이와 악기가 이런 것이라고 가르쳐주지 않았을까?'

이제 이 과제는 미래 우리나라의 중심이 될 아이들을 가르치는 우리들의 몫이 된 것 같다.

4개월간 진행된 국악소모임 활동을 정리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렵지만 이 모임을 함께 해나간다면 이런 어려운 과제들은 쉽게 해결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지탁연의 보육선생님들, 우리 95년 하반기에 어깨에 장구 질끈 매고 우리의 가락, 우리의 소리, 우리의 춤을 한판 신명나게 추어보면 어떨까요?

관심있으신 분의 연락을 바랍니다.

연락처 :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 02) 275-8505

어깨동무어린이집 02) 833-7326

↓ 가사말이 재미있어서 소개합니다.

아이들과 입맞로 한번씩 읊어봐도 괜찮을 듯 하네요.

산도깨비 (굿거리 장단)

달빛 어스름 한밤중에 깊은 산길 걸어가다
머리에 뿔 달린 도깨비가 방망이 들고서 에루와 둥둥
딩기다기 덩다라라 쿵기닥 좋-다.

깜짝 놀라 바라보니 틀림없는 산도깨비
아이고나 정말 큰일났네 두눈을 꼭감고 에루와 둥둥
딩기다기 덩다라라 쿵기닥 좋-다.

저 산도깨비 날 잡아갈까 가슴 소리는 쿵당쿵당
걸음아! 날 살려라 쫓지 빠지게 도망갔네
딩기다기 덩다라라 쿵기닥 좋-다.

건강하게 삽시다

감기와 감기의 합병증(2)

이홍진 / 한림대 부속 춘천성심병원
소아과 전문의 /

앞서 8월호에서 말씀드린대로 감기가 자연스런 치유의 과정을 밟지 못하는 경우 여러가지의 합병증이 나타날 수 있다. 그중에서 자주 접할 수 있는 질환이 기관지염, 모세기관지염 및 폐염이다. 이러한 질환들은 감기의 합병증으로 올 수 있지만 전혀 감기의 증상이 없이 올 수도 있다. 기관지염, 모세기관지염 및 폐염은 염증이 주로 발생한 부위에 따른 차이일 뿐 환자에게 나타나는 증상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묶어서 같이 설명드리겠다. 이러한 상태까지 진행된 경우 우선 많이 보이는 증상은 호흡이 빨라지고, 힘들어 하며, 목에서 가래 끓는 소리가 들리며, 기침을 심하게 한다. 기침소리는 때로는 개 짖는 소리처럼 쾅쾅 울리는 소리로 들리기도 한다. 심한 경우 숨 쉴때마다 가슴이 쑥쑥 들어가기도 하며, 입술이나 손가락 끝이 보라색으로 변하기도 한다. 대부분의 경우 열은 가벼운 정도로 나타나나 만약 고열이 있는 경우는 세균성 감염을 강하게 암시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증상들은 매우 위급한 상황을 암시하며, 갑작스럽게 아이의 상태가 생명이 위험한 상태로 진행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병원에 입원하여 정확한 진단을 받고 적절하게 치료받아야 한다. 만약 피치못할 사정으로 당장 병원에 갈 수 없는 상황이라면 집에서 할 수 있는 응급조치로써 많은 도움이 되는 것은 가슴기이다. 가슴기를 가까이에서 틀어놓고 그 수증기 속에 아이의 얼굴이 위치하도록 하여주면 가래를 묽게 하고 염증을 가라앉히는 효과가 있다. 그러나 반드시 주의할 것은 가슴기를 깨끗하게 씻어서 사용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깨끗이 씻지 않은 가슴기는 곰팡이를 포함한 많은 병원균의 온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이들의 경우 소화기계통의 병이 없으면서도 복통을 느끼고, 토하며, 설사를 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중에 대표적인 질환군이 바로 감기, 특히 급성 편도선염을 포함한 급성인후염과 폐염과 같은 그 합병증이다. 이때 나타나는 증상은 소화기계통의 병이 있을 때에 비하여 대개 가벼우며, 원질환이 좋아지면 같이 좋아지므로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또 한가지 중요한 감기의 합병증이 라이증후군이다. 이는 매우 심한 병중의 하나로 치사율이 매우 높은 무서운 합병증이다. 해열제로 아스피린을 썼을 때 발생율이 높은 것이 밝혀진 후 소아연령의 환아에게 아스피린을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그후 현저하게 발생율이 감소하였지만 이 질환의 초기증상은 보육을 담당하는 선생님들께서 알아두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아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자 한다. 5일 내지 10일 전에 감기를 앓고 좋아진 아이가 갑자기 보채고 조금은 난폭해진 듯 하며, 호흡이 빨라지고 힘들어한다. 이 단계를 지나면 아이의 의식이 흐려지며 자꾸만 잠을 잔다. 더 진행이 되면 완전히 의식이 없어지고 자극을 주어도 반응을 보이지 않는 단계를 거쳐 사망에 이른다. 이 질환은 매우 경과가 빨라서 발병으로 부터 사망까지 24시간이 안 걸리는 경우도 많으며, 예후도 얼마나 빨리 병원에 도착하느냐가 중요하므로 조금이라도 의심되면 가까운 종합 병원에 빨리 가야된다.

생각해봅시다(2)

우리 아이들이 먹는 음식물에서 이렇게 발견돼서야....

너무 놀라운 소식이 있었지요? '새우깡', '맛동산' 등의 과자에서 중추신경계와 심장질환을 일으키는 톨루엔이란 물질이 계속 검출되고 있다는 소식 말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톨루엔이 대부분 포장지에서 묻은 것으로 보인다며 포장조건에 대한 개선을 지시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중이라지만 영- 계를 걱정하네요.

심심찮게 먹거리가 가짜와 농약으로 오염되었다는 소식을 뉴스나 신문을 통해 접해왔지만 이젠 우리 아이들이 즐겨 먹는 과자류에서 생명을 위협하는 물질이 발견되었다니, 경악스러울 따름입니다.

도대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게 뭐가 있답니까?

글마당

탁 아 소 별 국

[칙칙폭폭 놀이방]편

이야기 하나 - 전화번호

자유놀이시간 민정이가 블럭을 가지고 친구들과 놀고 있는데 현배는 오전반이라 다른 친구들보다 일찍 집에 가게 되었다.

놀이방을 나서기 전에 현배가 민정이에게 물었다.

현 배 : 너희 집 전화번호 뭐니?

민 정 : 으-음, 생각이 안나.

현 배 : 잘 생각해봐.

선생님 : 현배야! 집에 가야지.

현 배 : (뛰어가면서 하는 말) 너희 집 전화할게, 전화번호 가르쳐줘.

이야기 둘 - 간식은 어찌똥똥 먹어야지!

간식시간인데 영남이가 안보였다.

선생님 : 애들아! 영남이가 어디갔지?

아이들 : 옆집에 있는 대성이형님께 찾게 갔어요.

선생님 : 대성이는 선생님과 이야기하고 갔지만 영남이는 아무말도 하지 않고 갔기 때문에 간식시간인데도 오지 않으니까 간식을 못먹겠다.

(그때 영남이랑 대진이랑 들어온다)

아이들 : 너 간식시간에 늦어서 선생님이 간식 안 주신대.

영 남 : 어떡하지, 간식시간에 아직 안 늦었으면 좋겠다.

이야기 셋 - 나는 민유리야!

학교 운동장에 놀러갔다. 모래사장에는 유리조각이 많아서 놀기에 적합하지가 않았다.

선생님 : 애들아! 유리층 치우고 놀자.

별이, 가만히 서있는 '민유리'를 데리고 간다.

선생님 : 그 '유리' 말고 모래사장에 있는 유리말아.

이야기 넷 - 신나는 장난감 병정

진양에 있는 들꽃 어린이집으로 자연캠프를 떠나기 며칠 전, 선물하려고 블럭바스켓 통을 사두었다.

영 남 : 왜! 우리 놀이방꺼보다 더 좋다.

별 이 : 정말! 좋다.

영 남 : (심각하게 고민하는 얼굴빛으로 변하면서) 나도 저 블럭통에 있는 장난감이 되고 싶어.

블럭통의 곁에는 장난감 꼬마병정이 장난감 미끄럼틀을 타며 재미있게 놀고 있는 것이 그려 있었다.

별 이 : 왜?

영 남 : 너무 재미있게 보여!

별 이 : 그런 누가 먹어주니?

이야기 다섯 - 어느 비오는 날

5세인 영희는 오늘 따라 매우 우울해 보였다.

선생님 : 영희야! 오늘은 기분이 안 좋아보이는구나.

영 희 : 마음이 아파요.

선생님 : 왜 우리 영희가 마음이 아픈가?

영 희 : 비가 와서 쓸쓸해서 그래요.

향기 있는 자리

어린 왕자

원작 생백취베리

우물이 있는 쪽에는 폐허가 된 해묵은 돌담이 있었다. 다음날 저녁, 일을 하고 돌아오면서 보니 어린 왕자가 그 위에 앉아 다리를 늘어뜨리고 있었다. 그리고 이런 말을 하는 게 들렸다.

「생각나지 않니? 정확히 여기는 아니야!」

그가 다시 대꾸를 하는 걸로 미루어 또 다른 목소리가 그에게 대답하는 듯 했다.

「아니야, 아니야. 날짜는 맞지만 장소는 여기가 아니야……」

나는 담벽을 향해 걸어갔다. 보이는 것도 들리는 것도 없는데도 어린 왕자는 다시 대꾸를 하고 있었다.

「…… 물론이지. 모래 위의 내 발자국이 어디서 시작되는지 가서 봐, 거기서 날 기다리면 돼. 오늘밤 그리로 갈게.」

나는 담벽에서 20미터쯤 되는 거리에 있었는데 여전히 아무것도 눈에 띄지 않았다.

어린 왕자는 잠시 침묵을 지키다가 다시 말을 이었다.

「네 독은 좋은 거니? 틀림없이 날 오랫동안 아프게 하지 않을 자신이 있지?」

나는 가슴이 두근거리 우뚝 멈춰섰다. 아무래도 무슨 이야기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다.

「그럼 이제 가 봐. 내려갈 테야!」 그가 말했다.

그래서 나도 담벽 밑으로 시선을 내려뜨려 보다가 기겁을 하고 말았다! 거기에는 삼십 초 만에 사람에게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그 노란 뱀 하나가 어린 왕자를 향해 몸을 뿔뿔이 세우고 있었던 것이다. 권총을 꺼내려고 호주머니를 냅다 뒤지며 나는 막 뛰어갔다. 그러나 내 발자국 소리에 뱀은 모래 속으로 스르르 물줄기 잣아들듯 미끄러져 들어가더니 가벼운 금속성 소리를 내며 돌들 사이로 조금도 허둥대지 않고 교묘히 몸을 감추어 버렸다.

나는 담 밑까지 이르러 눈처럼 새하얗게 된 나의 어린 왕자를 간신히 품에 받아 안을 수 있었다.

「이게 도대체 무슨 것이지? 이젠 뱀들과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나는 그가 밤낮없이 목에 두르고 있는 그 금빛 머플러를 풀렀다. 관자놀이에 물을 적시고 물을 마시게 했다. 그러나 이제는 그에게 무어라 물어 볼 용기가 나지 않았다. 그는 나를 진지한 빛으로 바라보더니 내 목에 두 팔을 감았다. 카빈총에 맞아 죽어가는 새처럼 그의 가슴이 뛰는 것이 느껴졌다.

「아저씨가 기계 고장을 고치게 돼서 기뻐. 아저씨 이제 집에 돌아가게 되겠지……」

「그걸 어떻게 알지?」

천만뜻밖에 고장을 고치는 데 성공했다는 걸 그에게 알리려던 참이 아니었던가!

그는 내 물음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이렇게 덧붙였다.

「나도 오늘 집으로 돌아가……」

그러더니 쓸쓸히,

「내가 갈 길이 훨씬 더 멀고…… 훨씬 더 어려워……」

무엇인지 심상치 않은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나는 느낄 수 있었다. 나는 그를 어린 아기처럼 품안에 껴안았다. 그런데도 내가 붙잡을 사이도 없이 그는 깊은 심연 속으로 곧장 빠져 들어가고 있는 것만 같은 기분이었다.

그는 물끄러미 아득한 곳을 바라보는 듯한 심각한 눈빛이었다.

「나에겐 아저씨가 준 양이 있어. 그리고 그 양을 위한 상자도 있고 굴레도 있고……」

나는 오랜 시간을 기다렸다. 그가 조금씩 조금씩 몸이 더워지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애, 넌 겁이 났었지……」

그가 무서워하고 있었던 건 틀림없었다! 그러나 그는 부드럽게 웃었다.

「오늘 저녁엔 더 무서울 거야……」

영영 돌이킬 수 없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느낌에 나는 다시 금 눈앞이 아찔해졌다. 그 웃음소리를 영영 다시 들을 수 없게 되리라 생각이 건딜 수 없는 일임을 나는 문득 깨달았다. 그것은 나에게서는 사막의 샘 같은 것이었다.

「애, 네 웃음소리를 다시 듣고 싶어……」

그러나 그는 이렇게 말하는 것



「그럼 이제 가 봐. 내려갈 테야!」 그가 말했다.

이었다.

「오늘밤으로 꼭 일 년째가 돼. 나의 별이 내가 작년 이맘때 떨어져 내린 그 장소 바로 위쪽에 있게 될 거야……」

「애, 그 뱀이니 만날 약속이니 별이니 하는 이야기는 모두 못된 꿈 같은 거 아니니……」

그러나 그는 내 물음에 대답하지 않았다. 그가 말했다.

「중요한 건 눈에 보이지 않아……」

「물론이지……」

「꽃도 마찬가지로야. 어느 별에 사는 꽃 한 송이를 사랑한다면 밤에 하늘을 바라보는 게 감미로울 거야. 별들마다 모두 꽃이 필 테니까.」

「물론이지……」

「물도 마찬가지로야. 아저씨가 내게 마시라고 준 물은 음악 같은 것이었어. 도르래와 밧줄 때문에…… 기억하지…… 물맛이 참 좋았지.」

「그래……」

「밤이면 별들을 바라봐. 내 별은 너무 작아서 어디 있는지 지금 가리켜 줄 수가 없어. 그 편이 더 좋아. 내 별은 아저씨에게는 여러 별들 중의 하나가 되는 거지. 그럼 아저씨 어느 별이든지 바라보는 게 즐겁게 될 테니까…… 그 별들은 모두 아저씨 친구가 될거야. 그리고 아저씨에게 내가 선물을 하나 하려고 해……」

그는 다시 웃었다.

「아, 애, 그 웃음소리가 난 좋다!」

「그게 바로 내 선물이 될 거야…… 그건 물도 마찬가지로야……」

「무슨 뜻이지?」

「사람들에 따라 별들은 서로 다른 존재야. 여행하는 사람에겐 별은 길잡이지. 또 어떤 사람들에게엔 그저 조그만 빛일 뿐이고. 학자인 사람에게는 연구해야 할 대상이고. 내가 만난 사업가에겐 금이지. 하지만 그런 별들은 모두 침묵을 지키고 있어. 아저씨 어느 누구도 갖지 못한 별들을 가지게 될 거야……」

「무슨 뜻이니?」

「밤에 하늘을 바라볼 때면 내가 그 별들 중의 하나에 살고 있을 테니까, 내가 그 별들 중의 하나에서 웃고 있을 테니까, 모든 별들이 다 아저씨에겐 웃고 있는 듯이 보일 거야. 아저씨 웃을 줄 아는 별들을 가지게 되는 거야!」

「그래서 아저씨의 슬픔이 가셨을 때는 (언제나 슬픔은 가시게 마련이니) 나를 안 것을 기뻐하게 될 거야. 아저씨 언제까지나 나의 친구로 있을 거야. 나와 함께 웃고 싶을 거고. 그래서 이따금 그저 괜히 창문을 열게 되겠지…… 그럼 아저씨 친구들은 아저씨가 하늘을 바라보며 웃는 걸 보고 꽤나 놀랄 테지. 그러면 그들에게 이렇게 말해 줘. <그래, 별들을 보면 언제나 웃음이 나오거든!> 그들은 아저씨가 미쳤다고 생각하겠지. 난 그럼 아저씨에게 못할 짓을 한 셈이 되겠지……」

그리고는 그는 다시 웃었다.

「별들이 아니라 웃을 줄 아는 조그만 방울들을 내가 아저씨에게 잔뜩 준 셈이 되는 거지……」

그리고 그는 또 웃었다. 그러더니 다시 심각한 기색이 되었다.

「오늘밤은…… 오지 말아.」

「난 네 곁을 떠나지 않을걸.」

「난 아픈 것같이 보일 거야…… 좀 죽은 것처럼 보일 거야. 그러게 마련이거든. 그런 걸 보러 오지 마. 그럴 필요 없어.」

「난 네 곁을 떠나지 않을 테야.」

그러나 그는 근심스러운 빛이었다.

「내가 이런 말 하는 건…… 뱀 때문이야. 뱀이 아저씨를 물면 안 되거든……. 뱀은 사나워. 괜히 장난삼아 물기도 하거든……」

「난 네 곁을 떠나지 않을 거야.」

그러나 무슨 생각을 했는지 그는 안심하는 듯 했다.

「두번째 물 때는 독이 없다는 게 사실이야……」

그날밤 나는 그가 길을 떠나는 걸 보지 못했다. 그는 소리없이 사라져 버린 것이었다. 뒤쫓아가서 그를 만났을 때 그는 켄겔음으로 주저없이 걸어가고 있었다. 그는 그저 이렇게 말할 뿐이었다.

「아! 아저씨 왔어……」

그리고는 내 손을 잡았다. 그러나 그는 다시 걱정을 했다.

「아저씨가 온 건 잘못이야. 마음 아파할텐데. 내가 죽은 듯이 보일 테니까. 정말로 죽는 건 아닌데……」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조금 풀이 죽어 있는 듯이 보였다. 그러나 그는 다시 기운을 내려 애쓰고 있었다.

「참 좋겠지. 나도 별들을 바라볼 거야. 별들이란 별들은 모두 녹슨 도르래가 있는 우물로 보이게 될 테니까. 별들이 모두 내게 마실 물을 부어 줄 거야……」

나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참 재미있겠지! 아저씨 오억 개의 작은 방울들을 가지게 되고 난 오억 개의 샘물을 가지게 될 테니……」

그리고는 그도 역시 아무 말이 없었다. 그는 울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저기야. 나 혼자 한 발짝 걸아가게 내버려둬 줘.」

그러더니 그는 그 자리에 앉았다. 무서웠기 때문이었다. 그가 다시 말했다.

「아저씨…… 내 꽃 말인데…… 나는 그 꽃에 책임이 있어! 더구나 그 꽃은 몹시 연약하거든! 몹시도 순진하고, 별 것도 아닌 네개의 가시를 가지고 외부 세계에 대해 자기

몸을 방어하려고 하고……」

나는 더이상 서 있을 수가 없어서 앉았다. 그가 말했다.

「자…… 이제 다 끝났어……」

그는 또 조금 망설이더니 다시 일어섰다. 한 발자국을 내디뎠다. 나는 꼼짝도 할 수가 없었다.

그는 발목에서 노오란 한 줄기 빛이 반짝했을 뿐이었다. 그는 한순간 그대로 서 있었다. 그는 소리치지 않았다. 나무가 쓰러지듯 그는 천천히 쓰러졌다. 오래 때문에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다.



나무가 쓰러지듯 그는 천천히 쓰러졌다.

소식과 소식

만5세아 조기입학 반대 연대회의 발족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만 5세아 국민학교 조기입학 방침에 대하여 일선 교사와 학부모, 그리고 시민단체가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교육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만 5세아 국민학교 조기입학을 반대하고, 유아교육의 공교육화와 국민학교 교육환경 개선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탁연, 부산 걱정모임 등 유아교육(보육)을 포함한 교육관련단체와 학부모단체, 그리고 사회시민단체 등 18개 단체가 모여서 만든 만 5세아 국민학교 입학 반대 및 유아교육의 공교육화 추진 연대회의에서는 12일 오전 11시 한국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기자회견에서 “첫째 만 5세아의 국민학교 조기입학을 반대하고, 둘째 다른 나라처럼 모든 만 5세아에게 무상으로 유아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유아교육의 공교육화를 추진하며, 셋째 현재 매우 열악한 상황에 처해있는 국민학교의 교육환경을 개선”할 것을 요구하였다.

현재 교육부의 만 5세아 국민학교 조기입학 허용방침이 전해지자 만 4세 아동들이 학원

으로 몰려들고, 만 4세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과외가 성행하며, 학부모들이 유치원에 국민학교 입학대비반을 만들어 줄 것을 요구하는 등의 부작용이 이미 나타나고 있어, 조기입학이 구체화될 경우 유아교육에 심각한 파행화가 우려되고 있다.

한편 연대회의에서는 만 5세아 조기입학이 담긴 교육법 개정안을 국회 상임위에서부터 저지한다는 결의를 하고 있어 교육부와와의 첨예한 대립이 예상된다. 연대회의는 현재 교사와 학부모를 대상으로 받고 있는 청원서명을 확대하여 범국민서명운동을 벌이기로 하고, 가두홍보도 계획하는 등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

2차 일본연수단 파견 준비

본 연합회에서는 작년에 이어 올해 역시 일본 연수단을 파견한다.

이번 연수단에는 신현희 본회 사무국장을 포함하여 지역을 대표한 교사 6명이 참가하며, 10월 24일(화)부터 11월 7일(화)까지 보름간 일본 오오사카 주요 보육시설을 탐방, 일본 보육시설의 교육내용을 중심으로 돌아보게 된다.

한편 최현숙 본회 회장은 일본 오오사카 김덕환(성화복지관장)씨로부터 초청을 받아 일본 연수단에 앞서 10월 21일(토)에 일본에 도착하여 오오사카 민족문화제에 참석할 예정이다.

지역별 조직개편 진행, 올바른 보육 모델 창출사업의 첫 발 내딛어

지탁연이 향후 전망에 대한 실천작업으로 평교사분과와 책임교사분과로 지역개편을 단행하였다. 또한 지역별 대표가 함께하는 중앙평교사분과장회의 및 책임교사분과



장회의를 서울경인지역과 지방에서 각기 갖고 지역별 상황 교류 및 사업계획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본회에서는 이 두 구조를 통해 올바른 보육사업의 내용을 운영과 교육의 측면에서 다루고 실천해나갈 계획이다.

세주위 여성사회참여 10대 과제 발표

세계화추진위원회에서는 지난 11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10대 중단기 중점추진과제]를 발표하였다.

여성 사회참여 확대 10대 과제 중 단기과제로는 ▲민간참여를 통한 보육시설의 확대 및 내실화 ▲방과후 아동지도제도 도입 ▲학교급식의 전면적 확대 ▲여성의 공직참여비율 최고

목표 설정 ▲공기업 신규채용시 여성고용 인센티브제도 도입 등을 들고 있다.

또한 중기과제로는 ▲모성보호비용의 사회적 분담체제 확립 ▲여성인력 양성체계 확충·개선 ▲여성관련 정보네트워크 구축 ▲[여성발전기본법(가칭)] 제정 추진 ▲대중매체를 통한 성차별의식 개선을 설정하였다.

그중 보육사업과 관련하여 정부차원의 시설 확충과 더불어 민간참여를 통해 보육시설의 획기적인 증가를 도모하며, 아울러 중산층 지역의 보육시설 확충을 유도하기 위한 대안으로 공동육아협동조합 설치(안)을 제시하고 그에 대한 설치 및 지원 근거규정 도입과 건물임차비의 지원을 내세우고 있다.

부모가 참여하는 새로운 육아사업의 모델 창출이라는 면은 긍정적이나 지원의 범위가 시설비 지원에만 그치고 있고, 더군다나 전체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정책과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정책이 전무한 점은 큰 문제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북경 세계여성대회 보고회

1995년 10월 6일 한국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한국여성NGO위원회의 주최와 정부장관 제(2)실, UNDP의 후원으로 북경 세계여성대회 보고회가 있었다.

80여명이 모인 이날 보고회에서는 8월 30일부터 9월 8일까지 있었던 북경 세계여성대회에서 있었던 NGO 포럼과 정부회의 보고 및 여성대회에서 다루어진 UN 행동강령 주요부분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또한 북경세계여성대회 이후의 한국여성운동 전략에 대한 패널토의도 이루어졌으며, 이후 한국여성NGO위원회의 향후 운영에 대한 토론이 있었다.

한편 UN 행동강령 주요부분에는 여자어린이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사람들>

* 결혼하셨습니다.

가을이 오자 맑은 가을 하늘 아래 많은 이들의 축복을 받으며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김연희(전 또래놀이방 교사)씨가 9월 20일 오후 1시 서울대동창회관에서 화촉을 밝히셨고, 9월 24일 오후 1시 30분 대전 엑스포과학공원 놀이마당에서 이영희(전 부산 칠평초등학교 교사)씨가 전통혼례를 올리셨습니다.

9월 30일에는 김실이 선생님(안산 진달래동산어린이집)이 오후 1시 청담동 성당에서 결혼식을 올렸구요, 10월 3일에는 천안 채송화어린이집에서 활동하시는 임윤숙선생님 역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푸른 가을에 새 가정을 꾸리시는 모든 분들께 지탁연 식구들의 축하와 함께 밝은 가정을 기원합니다.

* 이전, 통행하였습니다.

북부지역 등근나라어린이집과 햇님어린이집이 통합해서 새로운 공간으로 이전하였습니다.

인천에서도 엄마방어린이집과 무지개어린이집이 통합, 이전을 하고 [예술어린이집]이란 새로운 이름으로 활동을 합니다.

변경된 주소와 전화번호는 본회 사무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연합회 9월 일지>

9/ 14 여연 정사위

교육단체연석회의
유전교 방문

15 어린이도서연구회 강좌 참석

그림책소모임

16 교육연구부 모임

19 지방지역대표자회의

20 서경지역 책임교사분과장 회의

탁아소별곡 출판팀 모임

21 10주년 추진위 모임

밖으로 나가놀자 소모임

23 '예술어린이집' 이전식 참석

24 만5세아 조기입학 반대 연대회의

26 자원활동가대표자회의

여연 임원회의

27 평교사분과장 회의

28 집행위 회의

그림책 소모임

29 교육단체연석회의

30 '등근나라어린이집' 이전식 참석

인천지역 소모임교육

편집회의

10/ 1 일본연수팀 모임

5 서경지역대표자회의

6 북경세계여성NGO보고회 참석

7 교육연구부

9 탁아소별곡팀 모임

10 지방평교사분과장회의

11 서경평교사분과장회의

12 그림책소모임

만 5세아 조기입학 반대 연대회의

기자회견

14 편집회의

15 일본연수단 모임

보육계 풍향

어린이 건강교사 양성교육 기초과정

본회에서는 지난 4월 한문건강교육원에 위탁하여 마련했던 '영유아 건강교육입문'과정에 이어 이번에는 '어린이건강교사 양성교육 기초과정'으로 30시간 이수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어린이 건강교사 양성교육 기초과정>

주관 : 평화대학(부설) 한문건강교육원

장소 : 어린이 평화학교 자율학습실

- 서울대 전철역에서 도보5분(882-4705)

강좌일정: 1995년 10월 22일 - 12월 17일

(매주 일요일 오후 3시 - 6시 20분)

강사 : 김용희(임상연구원, 약사)

김신명(상임연구원, 자연건강 1급지도사)

특강 : 하윤희, 이성숙, 이영규

참가비 : 기초과정 수강자 - 5만원

입문과정 동시 수강자 - 7만원

* 재료비, 교재대 포함

준비물 : 수강신청서 1통, 사진1매, 이력서 1부, 건강교육에 대한 이력서

대상 : 지탁연 영아보육 담당교사

수강신청 : 지탁연 오윤정 교육부장에게 신청.

내용 : 아기의 사람됨, 몸사상과 영아에 대한 철학, 어린이 몸의 구조와 특성, 어린이 먹거리 및 건강, 생활, 현대의료와 어린이의 몸, 몸사상의 {어린이}교육철학, 한 몸짓기 건강요법(응급처치법 포함), 건강과 의약에 대한 우리의 입장(토론) 등.

* 본 강좌는 부분수강이 불가능하며 시간은 꼭 지켜셔야 합니다.

* 준비물은 강좌 당일 제출합니다.

지탁연 10주년 기념행사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회장 최현숙)에서는 올해로 창립 10주년을 맞아 기념행사를 마련한다.

일시 : 1995년 11월 19일(일) 오후 2시

장소 : 여성개발원 강당동 대강당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 10주년 기념행사>

1부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 10주년 기념식

- 지탁연이 걸어온 길(슬라이드 상영)

- 10주년 기념 출판물 소개

- 감사패 증정

- 10주년 기금 전달식

2부 축하마당 및 다과회

'95년 삼성어린이개발센터 제3회 국제

학술대회

“영유아의 보호와 교육 - 좋은 미래를 여는 첫걸음”

주최 : 삼성복지재단 어린이개발센터

연사 : Dr. Alice S. Honig

(Syracuse University)

이경훈 변호사(삼성그룹 법조실)

일시 : 1995년 10월 26일(목) ~ 27(금)

장소 : 삼성생명 국제회의실(동방플라자 1층)

참석인원 : 400명으로 제한

(희망자는 10월 11일까지 참가비 접수)

참가비 : 20,000원

구좌번호 : 상업은행 103-04-100853

(예금주 삼성복지재단)

교육내용 : 영유아의 정서발달, 영유아의 감각, 영유아의 언어발달, 어린이집에서 발생하는 법률문제, 어린이집에서의 영유아 훈육 등

'95 월간유아 재롱잔치 및 작품전시회

재롱잔치 및 작품전시회 준비를 위한 '95 월간유아 재롱잔치 및 작품전시회가 개최된다.

일시 : 10월 21일(토) 오전 9시 - 오후 6시

장소 : 정동문화체육관

(지하철 1,2호선 시청역 하차, 8분거리)

대상 : 전국유아교사, 원장, 유아교육과 학생

프로그램 : 환경구성과 조형활동에 관한 여러 활동, 오페렛타 음악극, 리듬신체조, 유아를 위한 연령별 재미있는 활동, 부모를 위한 활동 등.

참가비 : 월간유아, 꿈을 키우는 재능교육 정기구독자 2만원, 비회원 2만5천원

(교재, 테이프, 중식 제공)

문의 : (주)한국유아교육원 문화교육부

(02)274-9510~7

서울YMCA 창립92주년 기념 제8회

동요심포지움

“오늘의 사회는 동요를 필요로 하는가?”

발제1 : 우리 사회는 왜 동요를 외면하게 되었는가?

발제2 : 동요도 달라져야 한다

발제3 : 동요보급을 위한 현장운동의 구체적 방안

문의 : 서울YMCA 청소년사업부(723-6730)

일시 : 1995년 10월 26일(목) 오후 5시

장소 : 세종문화회관 소회의실

제7기 레크레이션 자격연수

대상 : 각급학교 교사, 직장인, 주부, 대학생

일시 : 1995년 11월 11일(토) - 12월 10일(일)

장소 : 본회 연수원(지하철 4호선 이촌역, 농업

기술자회관내)

연수회비: 20만원(교재비 포함)

문의 : 협회 사무국(02)557-4682, 4683

등록방법 : 온라인 입금 후 전화신청

국민은행 836-24-0033-715 김영광

구비서류 : 반명함판 사진 3매,

주민등록등본 1통

프로그램 :

- 이론 / 레크레이션 개론, 세계레크레이션사, 레크레이션, 지도안작성법, 이벤트연출법

- 실기 / 분위기연출법, 실내게임, 노래와 율동, 싱얼롱지도법, 파티만들기, 상황멘트법, 야외게임 및 활동, 전통놀이 및 공동체 훈련, 포크댄스 지도, 음악연출법, 촌극, 스피치와 사회진행법, 캠프화이어, (유아)놀이 지도법 등

인형극 모음잔치 [정개구리] 외 3편

메트로홀에서 서울인형극회와 공동기획으로 '인형극 모음잔치'를 공연한다.

이번 공연에는 '청개구리', '나쁜 말버릇', '개미와 비둘기', '배고픈 애벌레'가 공연된다.

공연일시 : 1995년 10월 17일 - 11월 15일

주말, 공휴일 12시, 2시

평일 11시, 2시 (매주 월요일 쉼)

공연장소 : 미도파 메트로홀

공연문의 : (02)950-2494, 2830

인형극 [아기돼지 삼형제]

극단 손가락이 '아기돼지 삼형제'를 공연한다. 기존의 인형극적인 요소에 만화적 기법, 마임, 이미지 음악의 기법을 도입하여 각 장르의 특성이 적절하게 극에 삽입되었다. 또한 아이들에게 요소요소에 맞는 질문을 던져 능동적인

자세에서 감상할 수 있도록 하였다.

공연일시 : 1995년 8월 29일 - 10월 31일

평일 11시(단체), 2시,

토요일 2시, 4시

일, 공휴일 2시, 3시, 4시

공연장소 : 드림랜드 내 오색극장

공연문의 : (02)985-5781, 985-1487

가정평화를 위한 시민한마당

온가족이 함께 하는 가을음악회

<서울>

일시 : 1995년 10월 20일(금) 오후 7시

장소 :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

출연 : 해바라기, 안혜경, 이경애, 선명회합창단

특별출연 : 사람과 나무(가정평화를 위한 노래 대상수상팀)

사회 : 허수경, 정유성

공연문의 : (02)269-2962

<부산>

일시 : 10월 28일(토) 오후 3시

장소 : 무궁화회관(이사벨여고 강당)

출연 : 이선희, 안혜경, 부산진구 어머니 합창단, 리틀셀라 합창단,

특별출연 : 사람과 나무

사회 : 오숙희, 유기경

공연문의 : (051)817-4321

주최 : (사)한국여성의 전화, 부산여성의 전화

후원 : 조선일보, MBC문화방송

참가단체 :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단체협의회, 가정폭력 방지법 추진을 위한 전국연대, 한국시민단체 협의회, 한국기독교 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민주사회 시민연대

* 입장수입은 가정폭력 방지법 입법을 위한 기금으로 쓰여집니다.

[여성인력 과학기술분야 활용방안] 정책토론회

일시 : 1995년 10월 18일 (수) 오후 2시 - 5시

장소 : 한국과학기술회관 대회의실

(강남역 하차)

문의전화 : 553-2181, 2185 (교환129)

주최 :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한국여성단체연합

주관 : 정무장관(제2)실

후원 :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남녀고용 평등의 달 기념 세미나

"여성의 사회진출과 취업, 무엇이 문제인가?"

일시 : 10월 18일(수) 14:00-17:00

장소 : 전경련 회관3층 대회의실

주최 : 한국부인회총본부

주제강연 :

-우리나라 여성의 취업실태와 고용의 불평등

-취업여성의 영,유아보호시설 실태와 정책방안

한국성폭력상담소 열림터 개설 1주년 기념세미나

성폭력 피해자들을 위한 열림터 개설 1주년 기념세미나를 한다.

일시 : 1995년 10월 24일(화) 오후 2시 -4시

장소 : 한국여성개발원 여성공동의 장

(02-360-0070)

1부 열림터 운영의 취지와 필요성

2부 발제 및 토론

- 열림터 내담자의 심리적 상태와 운영실태

- 근친성폭력 피해자의 심리적 후유증과 접근방법

- 성폭력 피해상담의 여성중심적 접근방법과

열림터의 필요성

- 집단상담의 효과와 외국 쉼터의 운영실태

- 열림터의 방향모색과 전망

주최 : (사)한국성폭력상담소

<여성, 인간, 예술정신> 김인순 개인전

'84년 개인전 이후 여성의 평등한 삶을 염원하며 그림을 그려온 김인순씨가 <여성, 인간, 예술정신>라는 주제를 갖고 그간의 작업을 모아 작은 책을 묶고 전시회를 마련한다.

전시기간 : 1995.10.18 - 24

장소 : 21세기(종로구 관훈동, 안국역 하차)

(02-735-4805)

조기교실 원아모집

서울 관악구 성민종합복지관은 0-12세 장애 어린이를 대상으로 조기교실, 어린이집 원아를 모집하고 있다. 교육은 조기 특수교육과 보육을 병행하며 오전, 오후, 종일반(보육료 14만 - 17만3천원)을 운영할 예정. 오는 10월부터 실시예정인 조기 특수교육 교실, 어린이집의 원아 가운데 생활보호 대상자 자녀는 무료 문의 : (02) 876-0900

장애유아교실 원아모집

서울가락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5-7살 정서장애, 정신지체, 자폐아를 대상으로 장애유아교실 원아를 모집하고 있다. 교육은 월-금요일 오전 9시부터 낮 12시 30분까지 특수교육과 유아교육을 아울러 실시한다. 교육비는 12만원. 문의 : (02)449-2341

여성학 전문도서관 설립

동덕여대는 여자대학으로서의 특성을 극대화하고 21세기의 여성학 및 여성관련분야의 연구수요 증대에 대비하고자, 국내 대학 최초의 여성학전문도서관을 설립하고, 지난 9월 29일에 부분개관식을 가졌다.

한편 오는 1996년에는 신축중인 4층 별관 건물(연건평 800여평)로 이전하여 여성학연구소 설립과 더불어 여성학연구센터로 확대할 예정이다. 더불어 도서관 전산화가 완료되면 교외 이용자들도 공중통신망을 활용하여 각 가정에서도 쉽게 자료를 검색할 수 있게 되며, 추후 원문검색등이 가능한 전자도서관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개인 및 가족상담

이화여대 사회복지관에서는 혼자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지닌 개인 및 가족을 대상으로 상담을 하고 있다.

상담시간 : 월~금, 오전 9시 - 오후 5시

상담내용 : - 가정상담 / 부부갈등, 자녀양육문제, 고부간 갈등
- 청소년상담 / 성문제, 학교부적응, 진로문제
- 정신건강상담 / 성격부적응, 대인관계 문제

상담전화 : 이화여대 사회복지관

(02) 360-2597

<9월 구비자료>

만 5세아 조기입학 허용에 대한 유아교육공
청회 / 유아교육을 위한 인천교사모임
만 5세아 유치원 공교육화 실현에 대한 대토
론회 자료집 / 경인지역 유아교육과연합회
가정복지 9호 / 부산가정복지연구소
동화 읽는 어른 39호 / 어린이도서연구회
아이들의 함성 20,21,22호 /
유아교육을 위한 전국교사모임
함께걸음 95. 10월호 /
(사)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복지시대 95. 여름호 /
사회복지법인 대한사회복지개발원
사법감시 창간호 /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사법감시센터
포럼2001 95. 9월호 / 포럼2001
함께 가는 여성 95. 9월호 / 한국여성민우회
제주여성 '95 여름호 / 제주여민회
가정상담 95. 8월호 / (사)한국가정법률상담소
한국여성신학 95. 가을호 /
한국여성신학자협의회
지역환경통신 95. 9월호 /
내일을 위한 지역환경연구소
대구여성 제42호 / 대구여성회
교회와 지역사회 /
영등포노회 지역사회선교협의회
전북여성 10호 / 전북여성운동연합
부산지역위 1995년 하계 수련회 자료집 /
부산지역위원회
그루폴 15호 / 참교육시민모임
시민체육 95. 10월호 / 서울특별시 체육회
학부모신문 95. 9. 5일자 /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21세기 한국 95. 7월호, 8월호 /
21세기한국연구소
한국여성연구회 회보 95. 8,9월호 /
한국여성연구회

한국YMCA소식 95. 8,9월호 /
한국YMCA전국연맹
천리안 매직콜 95. 10월호
월간 딸 95. 10월호
<영화 전태일>소식지 2호
유아교육신문 95.9.11일자
서울시청뉴스 95. 9. 14일자
노동자신문 95. 9. 15일자
들소리신문 95.9.17일자
양천신문 95. 9. 21일자
세누리신문 95. 9. 23일자
기독신보 95. 9. 23일자
장애복지21 / 95. 9. 25일자
노동자신문 95. 9. 26일자
노동자신문 95. 9. 29일자
세누리신문 95. 9. 30일자
들소리신문 95. 10. 1일자
서울시청뉴스 95. 10. 5일자
기독신보 95. 10. 7일자
들소리신문 95. 10. 8일자

이책에도 생곡놀이방에서 하지
보내주셨습니다.

본 연행회에 각종 자료와 회지를 보내주신
개인 및 단체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연행회 구비자료 목록>에 게재된 자료는 본
연행회 회원이면 누구나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벼룩시장

* 벼룩시장에서는 여러분이 알고 싶은 일이나 함께 하고 싶은 모임, 물론 교환
등 여러분의 각종 정보를 본양과 내용에 관계없이 받고 있습니다. 정보를 주시고
자 하는 분은 지체없이 편집부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교사를 구합니다. 본 회 소속 어린이집에서 활기찬 보육활동을 함께 하고자 하는 의 욕찬 교사를 구합니다. 희망하시는 분은 본 회 사무국으로 연락을 주시 기 바랍니다.	농촌 아기는 게 별건가요? 농촌에 어린이집이 세워지고 재정이 안정되면 그것도 농 촌을 지키는 일이지요. 그렇다면 첫술 어때요? 농촌탁아소 재정마련을 위한 첫술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품질 보장에, 가격은 한세트(4개입)에 2,500원입니다. 대금미납하신 분들은 속히 지불해주시기 바랍니다.
머리 좀 빗집시다! 올해는 지택연이 10살이 되었습니다. 11월 19일이 지택연 10주년 기념행사일로 확정되 었다는 사실을 모르는 회원분들은 아마 없겠지요? 지택연의 10주년을 기념할 여러분의 기쁘친 아이 디어를 공모합니다. 번뜩이는 지혜와 지택연에 대한 애정으로 멋진 아이디어를 보내주시면 기쁘게 받겠습 니다. 지택연 10주년 기념사업추진원	지역보육운동, 아직도 못보셨다구요? 일본 보육운동의 산 증인 스즈키 쇼조 선 생님의 교육관을 높이, 가정, 지역, 인권 등의 면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아이와 생활하는 보육교사의 필독서! 더 늦기 전에 구입하세요. 문의는 연합회로. 판매가 : 5,000원
꺼리 모음, 글 모음 "우리네 아이들"을 채워줄 귀한 이야기 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활에서 보고 느끼신 거나 보 육활동을 하면서 제기되는 생각들, 기타 모든 내용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직접 글 로 써주시면 더없이 고맙지요. [우리네 아이들] 편집부	그림책 우편판매!! "우리네 아이들"에서 소개되는 좋은 그림책을 판매합니다. 할인되지 않지만, 회원들(자료회 원 포함)께는 무료발송을 해드립니다. 10월호 소개책자: 엘머(정가 5,000원) 돌아온 엘머(정가 5,000원) 기타 이전에 소식지에서 소개되었던 그림책도 신 청 가능합니다. 담당:오윤정 교육부장
물품 구입 희망 장 볼 때 사용할 성인용 자전거 와 컴퓨터가 필요합니다. 현재 갖고 있지만 쓰이지 않는 자전거나 컴퓨터가 있으신 분은 연락 주세요. 문의 : 등근나라어린이집 (02-985-6920)	보육사업 하려면 이 책쯤은 읽어야... 아동보육사업 경영경제론 할인판매 아동보육사업의 경영경제에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을 총괄, 체계적으로 수록한 [영유아총서 : 아동보육사업 경영경제론 (이석무 저, 해화당, 정가 11,000원)]을 정가보다 다소 저 렴한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판매 희망자는 본 연합회로 연락하거나 직접 방문구입을 하면 됩니다. 판매가 : 10,000원(외부) 9,000원(내부, 자료회원)

편집부에서

* 많이들 기다리셨죠?

“빨리 빨리”를 외치며 작업을 서둘렀는데도 여전히 발행시기를 앞당기기가 어렵네요.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이 한편으론 무척이나 큰 힘이였으면서도 또 다른 한편으론 부담으로 다가오기도 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리셨던 독자 여러분에게 [우리네 아이들] 10월호가 달게 느껴져야 할텐데 벌써부터 걱정입니다. 어떻게든 받아보실지....

요즘은 만 5세아 조기입학에 대한 논란이 상당히 많습니다.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활동하시는 독자들께선 더더욱이나 관심이 많으실테죠.

‘좋은게 좋다’라고 모두에게 좋은 결과를 올 11월에 생겼으면 합니다.

* 기대해주세요.

다음호는 지탁연 10주년을 맞아 10주년 기념특집호로 기획, 발행될 예정입니다.

벌써부터 가슴이 쿵쿵쿵쿵, 어떻게 하면 여러분에게 특집호다운 모습으로 뵈 수 있을지 긴장되고 흥분되는데요, 많이들 기대해주세요.

* 자료회원 회비를 받았습니 다.

1 년 : 김명숙, 배미정, 박미숙님

6개월 : 송옥주님

의 [우리네 아이들] 구독료를 받았습니 다.

구독기간이 마감되어 재구독을 원하시거나 구독신청 후 회비를 미납하신 회원님들께서는 빠른 시일내에 [우리네 아이들] 계좌번호로 자료회원 회비를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원배가운동에 동참해주시요.

[우리네 아이들]을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자 자료회원 배가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주변에 아이들과 함께 생활하시는 분이 있으시면 권해주세요.

* 회원 여러분의 귀한 글을 기다립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삶이 담겨져 있는 글이나 소재를 받습니다.

보내주신 원고가 채택된 경우 작은 기념품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우리네 아이들]을 아끼는 많은 회원님들의 참여가 있기를 바랍니다.

* 빼그덕 빼그덕

이렇게

10월을 맞이한다.

좀 부족하게

- 해민

* 너무나 많은 일들 속에서 주체하지 못하고 보낸 시간들이었다.

후에는 이 시간들이 소중한 기억으로 남겠거니 여기며....

- 미혜

청명한 가을 하늘,

가족들과 가까운 공원에서 사진 한장

남겨보는 건 어떨까요?

‘우리네 아이들’을 매월 정기적으로 받아보시려면...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에서는 보육사업에 종사하는 많은 보육시설종사자와 관심있는 분들을 위해 탁아활동의 길잡이 ‘우리네 아이들’을 매월 정기적으로 발간합니다.

‘우리네 아이들’은 보육과 관련된 각종 연구결과, 영유아 교육의 이론 및 실제프로그램과 보육사업을 수행하는데 도움이 되는 정보들을 싣고 있습니다.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에서 정기발간하는 ‘우리네 아이들’을 정기구독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본 연합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사업에 힘쓰시는 모든 분들의 노력에 감사하는 뜻으로 좋은 내용, 알찬 정보를 가지고 계속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 자료회원이 되시면

- 1) 소식지 ‘우리네 아이들’을 매달 우편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2) ‘우리네 아이들’외 본 회에서 제작하는 각종 자료집 및 책자에 대한 정보를 신속하게 받아보실 수 있으며 회원가격에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 3) 본 회에서 주최하는 여러 교육과 행사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자료회원 신청은

- 1) 본 연합회 사무국으로 전화연락을 하시거나 우편으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 2) 우편발송시 ‘우리네 아이들’을 받아보실 분의 성함과 직업, 나이, 주소 및 전화번호를 기입하시고 어떻게 ‘우리네 아이들’을 보시게 되었는지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 3) 신청후 회비는 다음으로 송금해주시면 됩니다.
- 4) 송금 후에는 반드시 연락을 해주십시오.

다 음

신청접수: 100-391

서울시 중구 장충동1가 38-84 여성평화의 집 3층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 ‘우리네 아이들’편집부 앞
☎ 275-8505~6

송금구좌: 국민은행 068-21-0479-041 정희연
(6개월 구독 13,000원 1년 구독 25,000원)

♥지택연 가족이 함께 만든 이 책을♥

어린이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모든 분들께 드립니다.

펴낸곳: 지/역/사/외/탁/여/△/인/업/외
서울시 중구 장충동 1가 38반지 84호
여성평화의 집 3층 (우)100-391
☎ 02)275-8505~6 FAX: 275-8506
펴낸이: 최현숙
무은이: 변미양, 주혜민, 황미혜
펴낸날: 1995년 10월 18일

판매가 : 3,000원